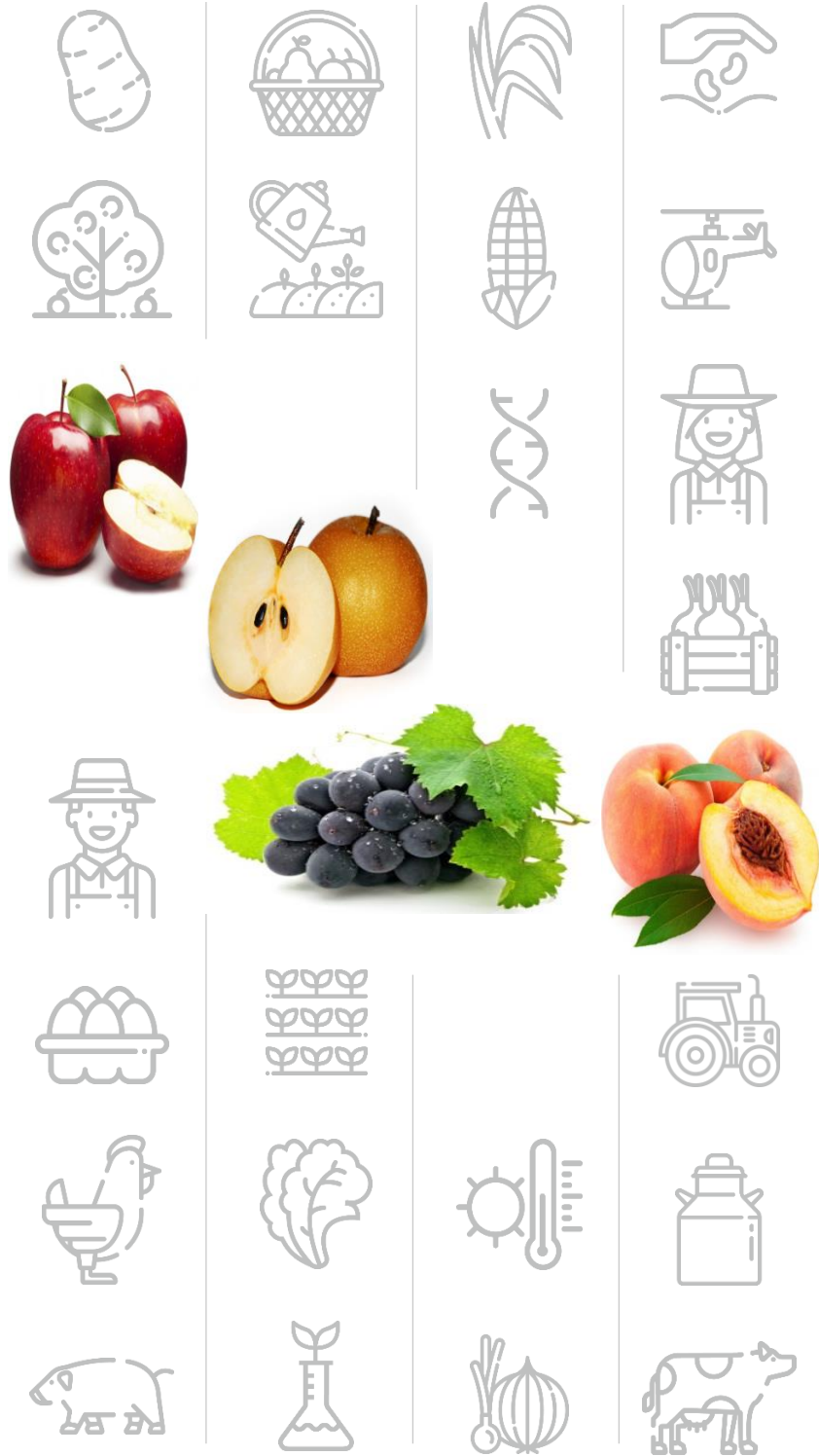




과일 공급 동향과 소비 트렌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목차

I 과일 산업 현황

II 과일 공급 및 가격 동향

III 과일 소비 트렌드 분석

IV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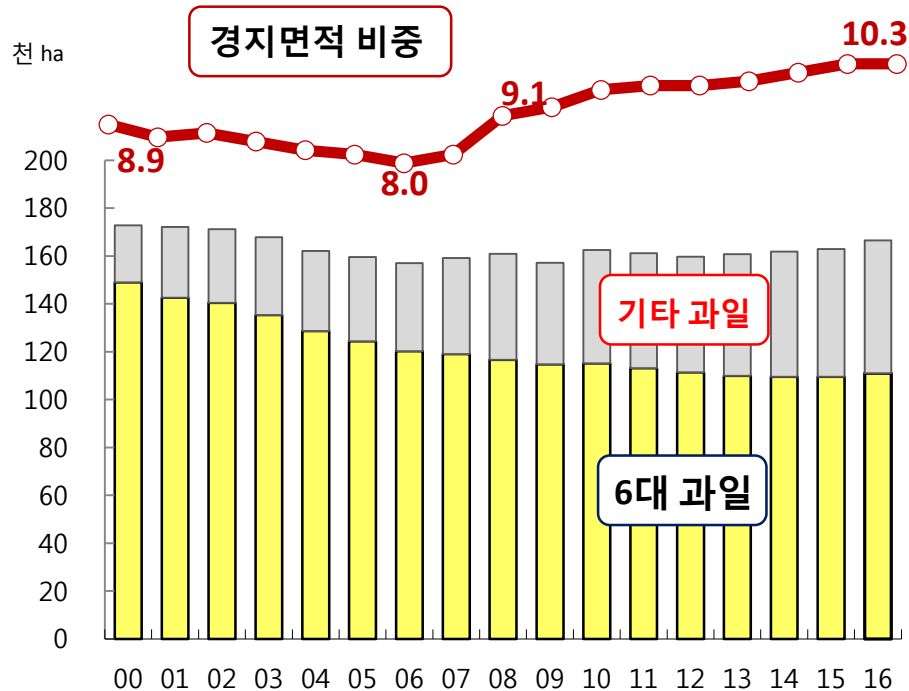


1. 과일 산업 현황

과일 재배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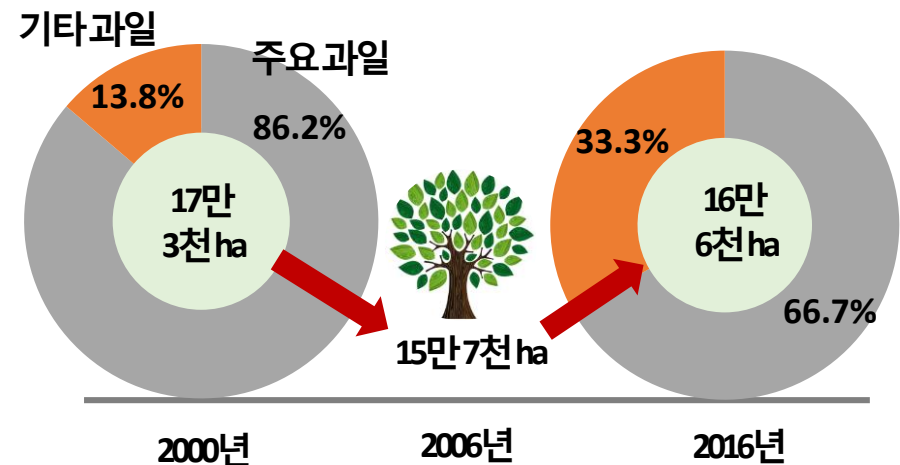
- ✓ 과일 재배면적 2006년 이후 연평균 0.4% **증가**하는 추세
- ✓ 경지면적 대비 과일 면적 비중 2006년 이후 **증가**
- ✓ 6대 주요 과일 면적 비중 86%→67% **감소**, 기타는 14%→33% **증가**

경지면적 대비 과일 면적 비중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과일 재배면적



기타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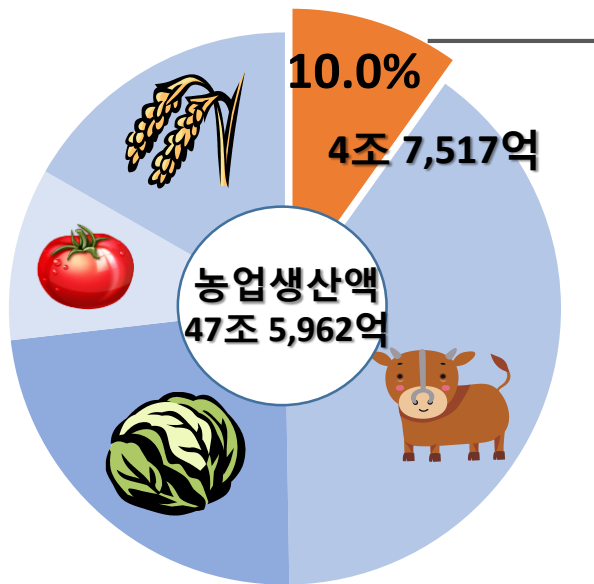


자두, 매실, 체리, 무화과, 참다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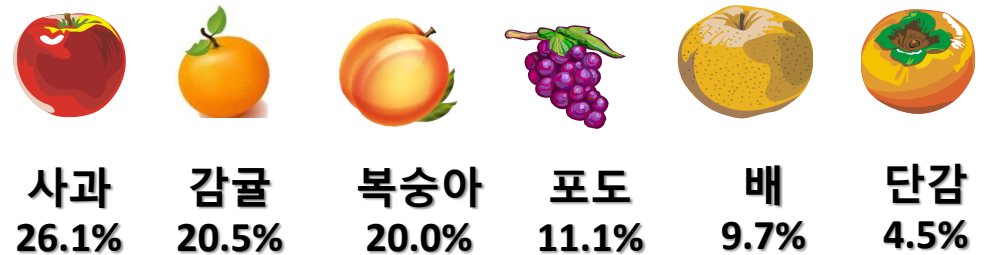
과일 생산액 동향

- ✓ 2016년 과일 생산액은 농업 총 생산액 중 10% 차지
- ✓ 과일 생산액 중 6대 주요 과일 비중 92%, 기타 과일 8%
 - 기타 과일 생산액 연평균 7% 증가, 6대 과일 4% 증가(2000년~2016년)

2016년 농업 생산액 비중



품목별 생산액(2016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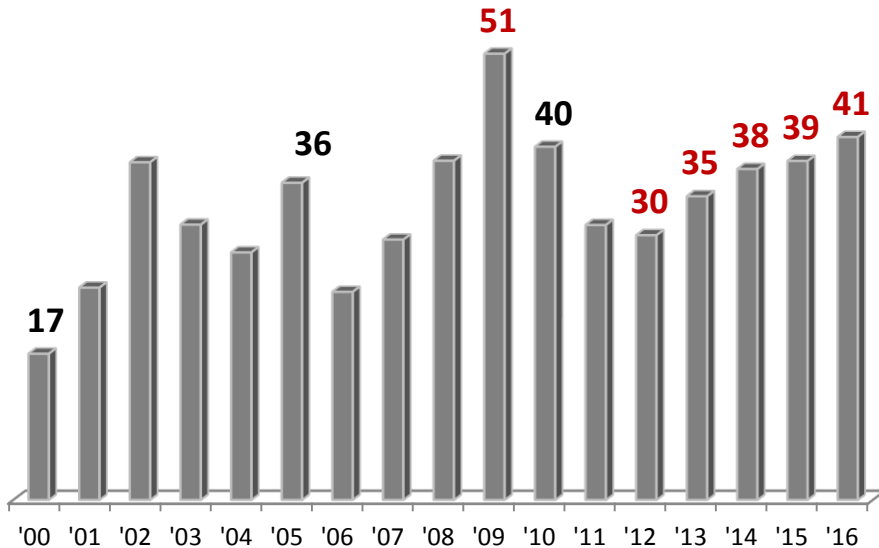
신선 과일 수출 동향

- ✓ 신선 과일 수출량 2012년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
- ✓ **배, 사과, 포도** 수출량 2012년 대비 **증가**, 단감과 감귤 **감소**

수출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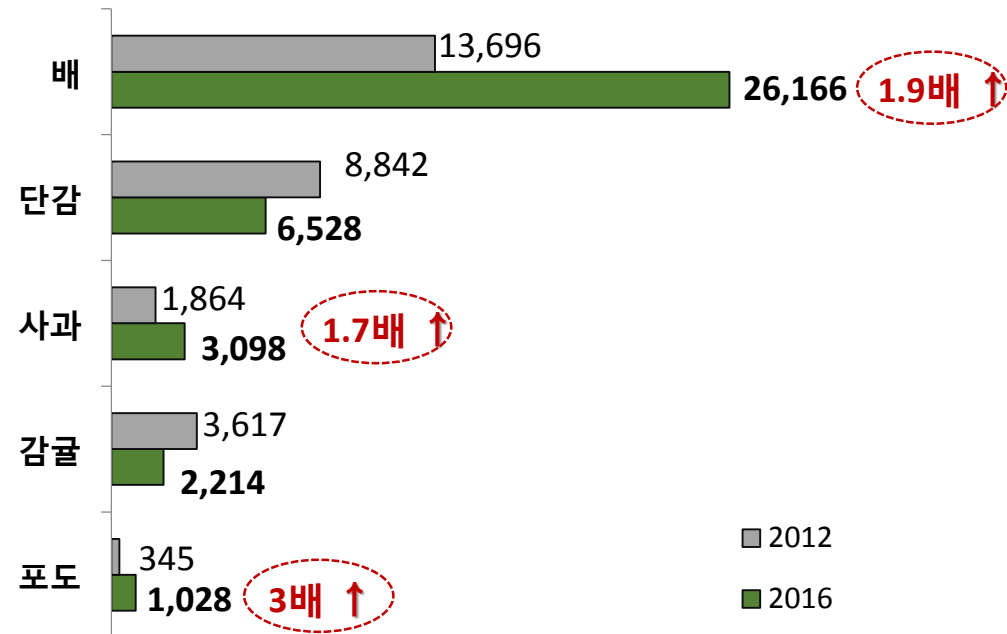
(단위: 천 톤)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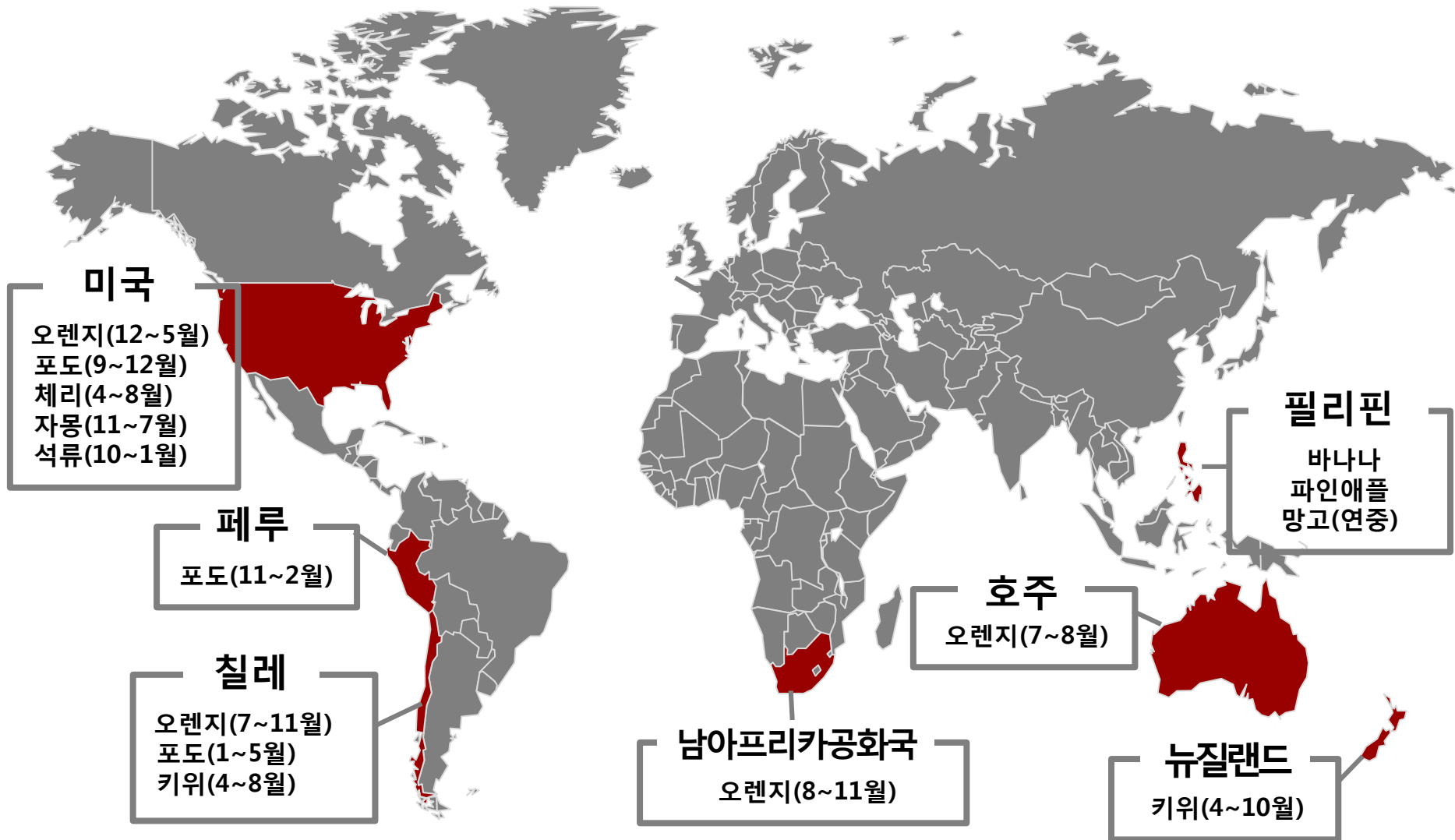
품목별 수출량 변화

(단위: 톤)



주요 수입과일 및 수입국

현재 FTA 현황 : 52개국 15건 체결, 15건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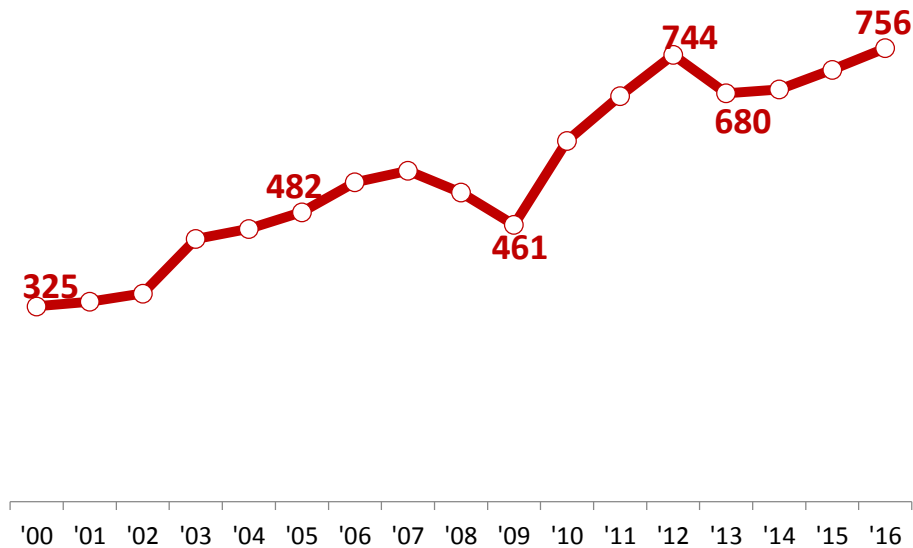
신선 과일 수입 동향

- ✓ 신선 과일 수입량 2000년 32만 5천톤→2016년 75만 6천톤 **증가** 추세
-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키위 신선과일 수입량의 90% 차지

수입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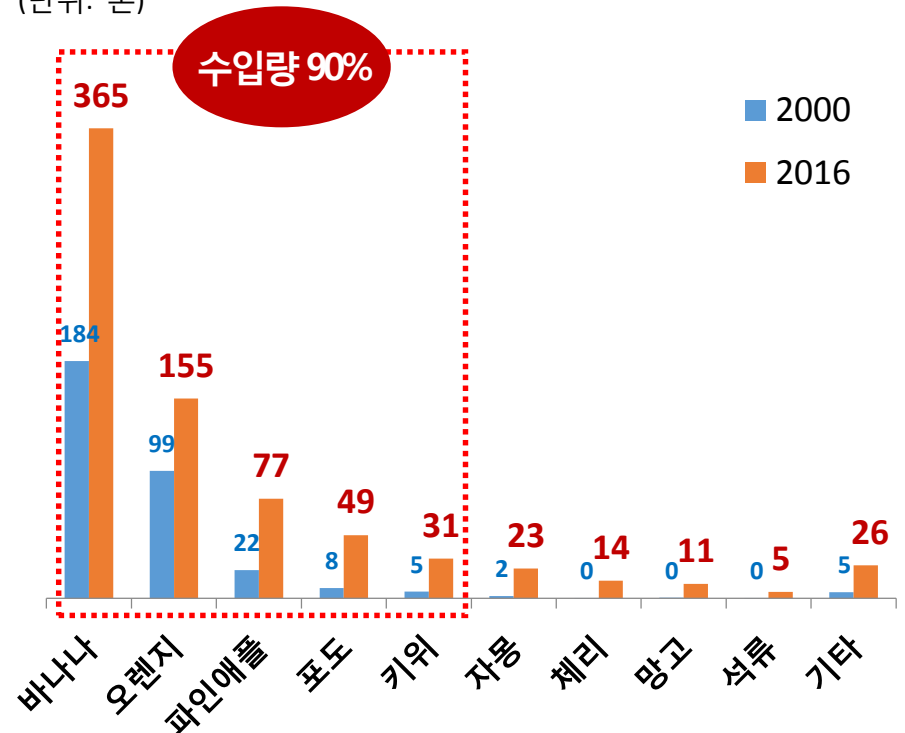
(단위: 천 톤)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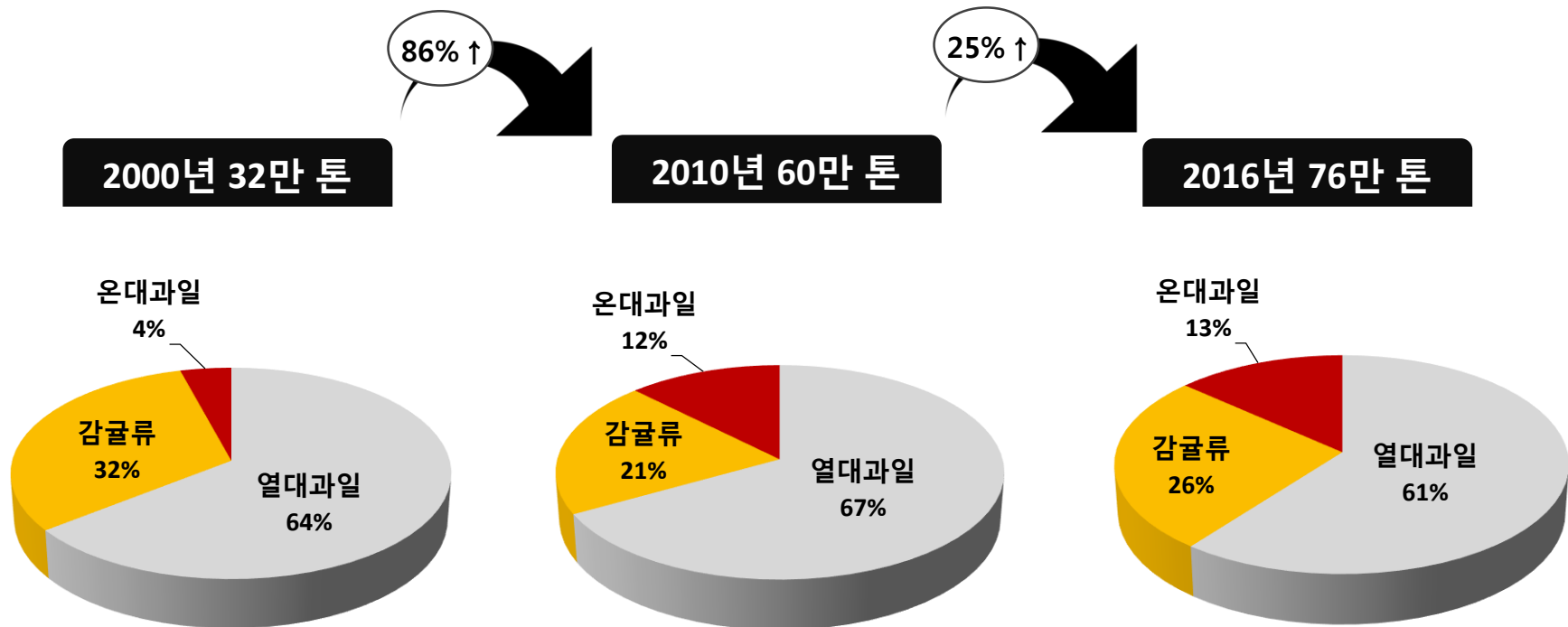
품목별 수입량 (2016년)

(단위: 톤)



주요 수입과일 부류별 변화

- ✓ 열대과일 수입량은 16년 전에 비해 113% 증가, 감귤류는 89% 증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자몽, 레몬)
- ✓ 온대과일 수입량은 16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
(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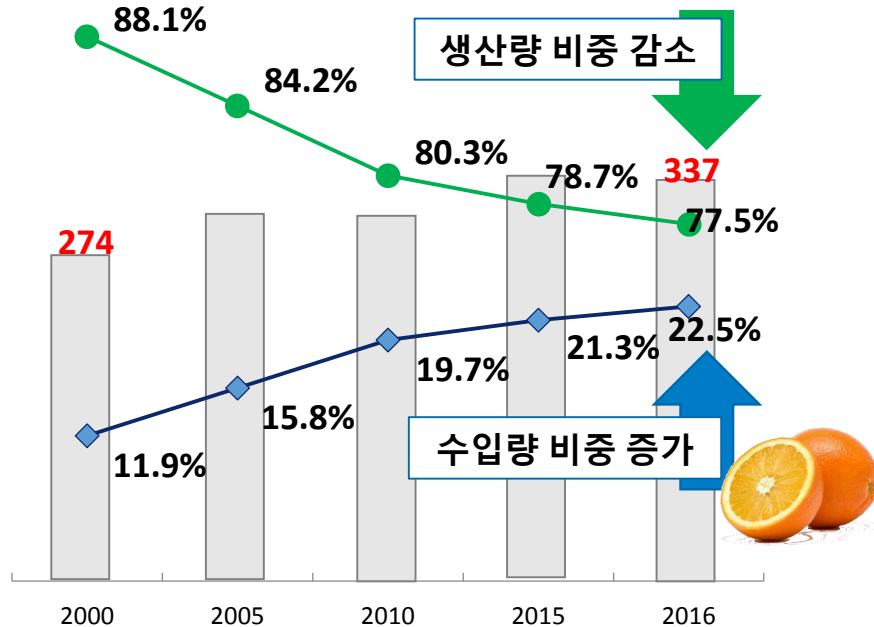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신선 과일 공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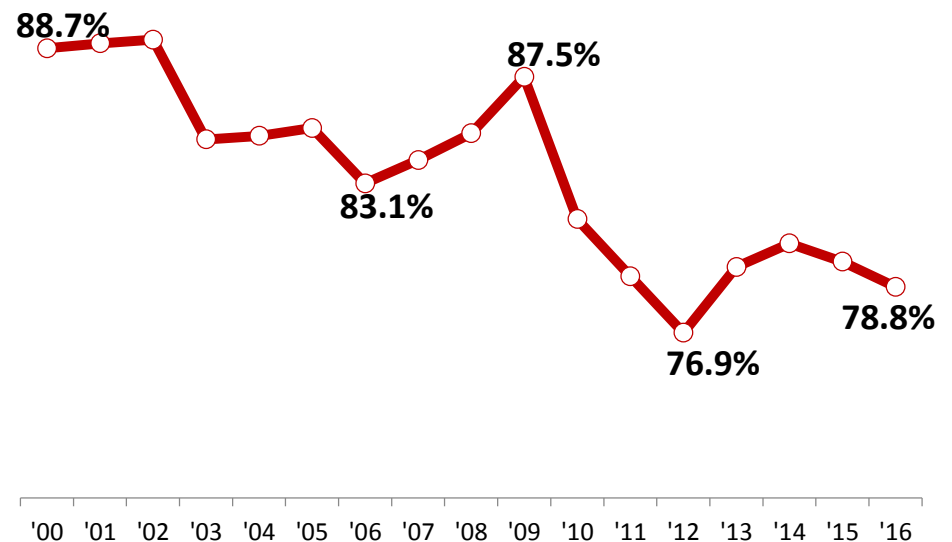
- ✓ 신선 과일 전체 공급량 2000년 대비 2016년 23% **증가**
 - 국내산 과일 공급량 같은 기간 **9%** 증가, 수입량은 **132%** 증가
- ✓ 신선 과일 자급률 2000년 **89%**→2016년 **79%** **감소** 추세

국내산 과일 공급량 및 수입량 비중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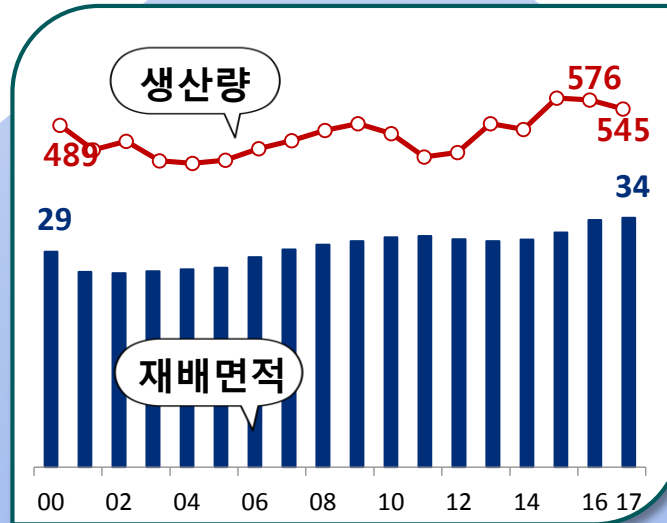
과일 자급률



주: 국내산 과일 공급량은 수출량을 제외한 것임.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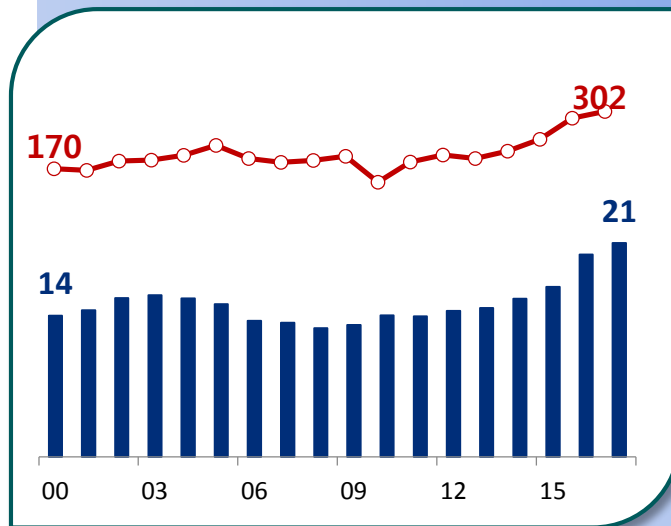
2. 과일 공급 및 가격 동향

사과 (연평균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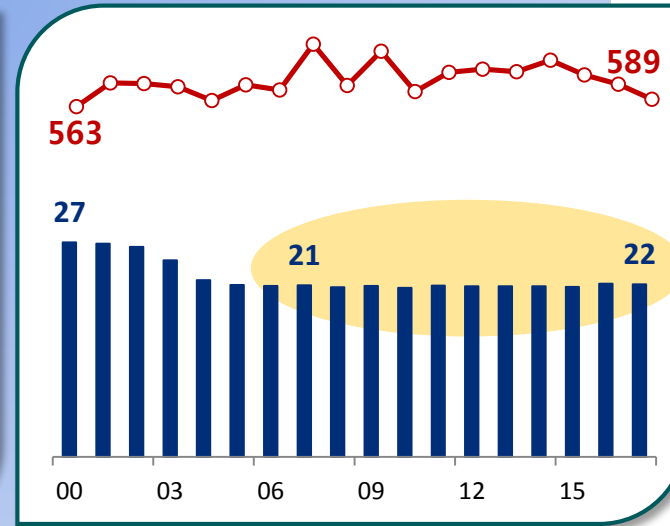


(단위: 천ha, 천톤)

복숭아 (연평균 2.5%)



감귤 (연평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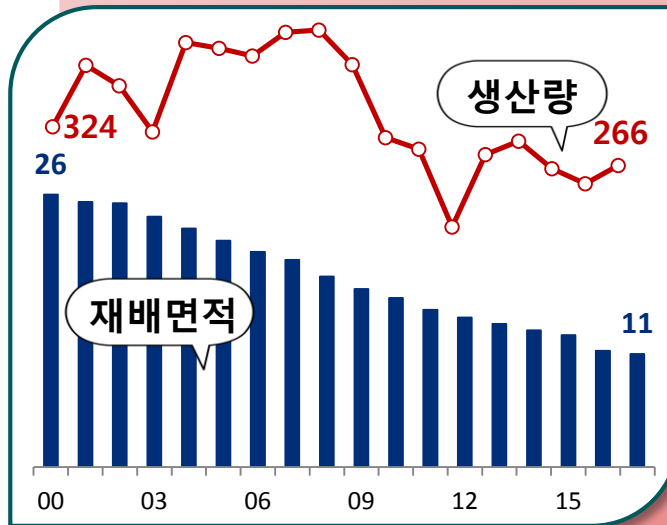
재배면적 증가 or 정체

주: 2017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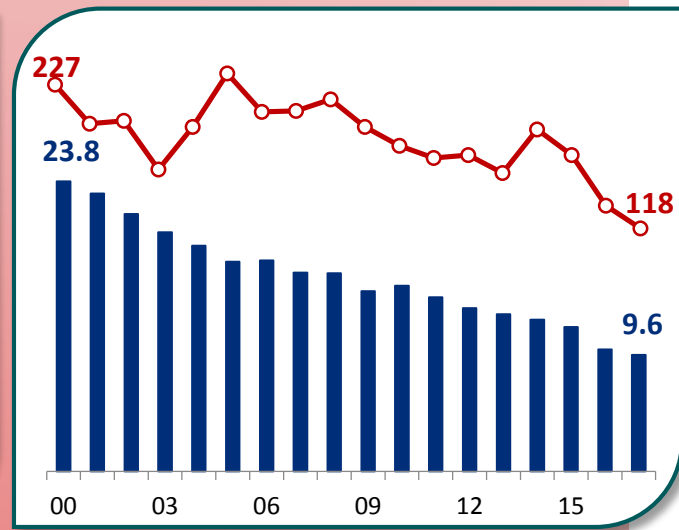
재배면적 감소 추세

(단위: ha,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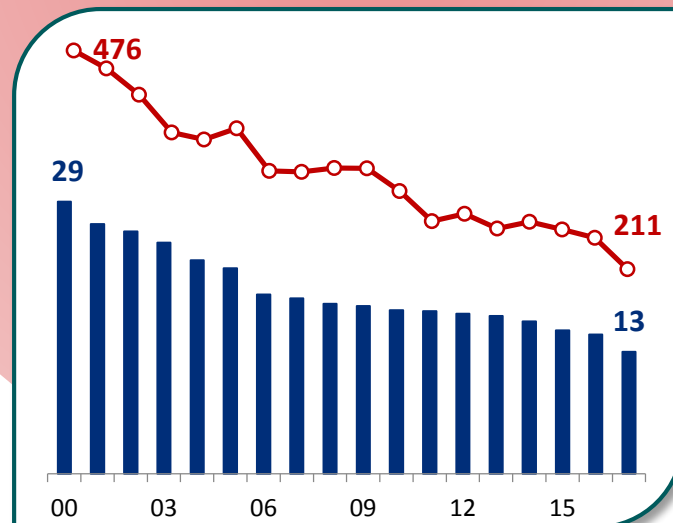
배 (연평균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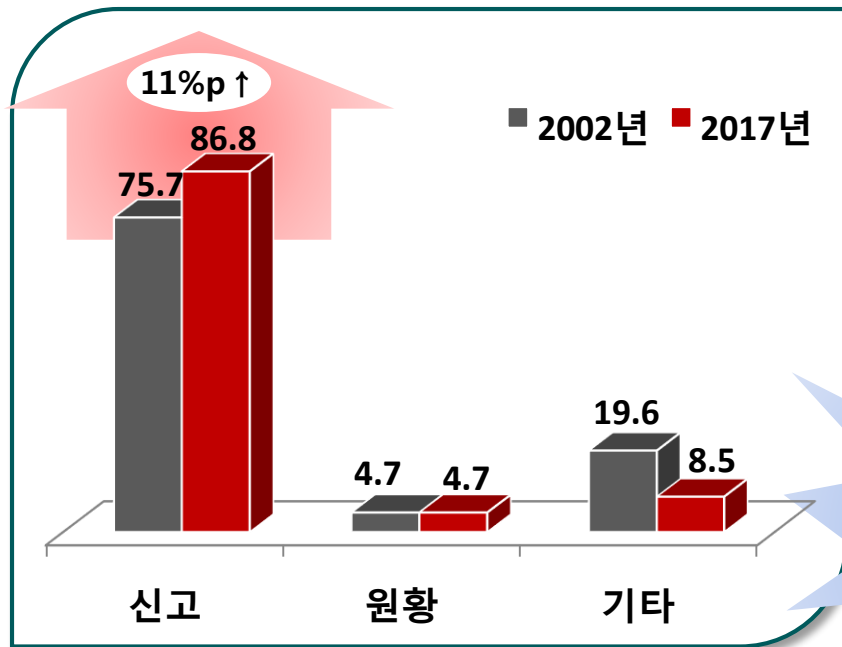
단감 (연평균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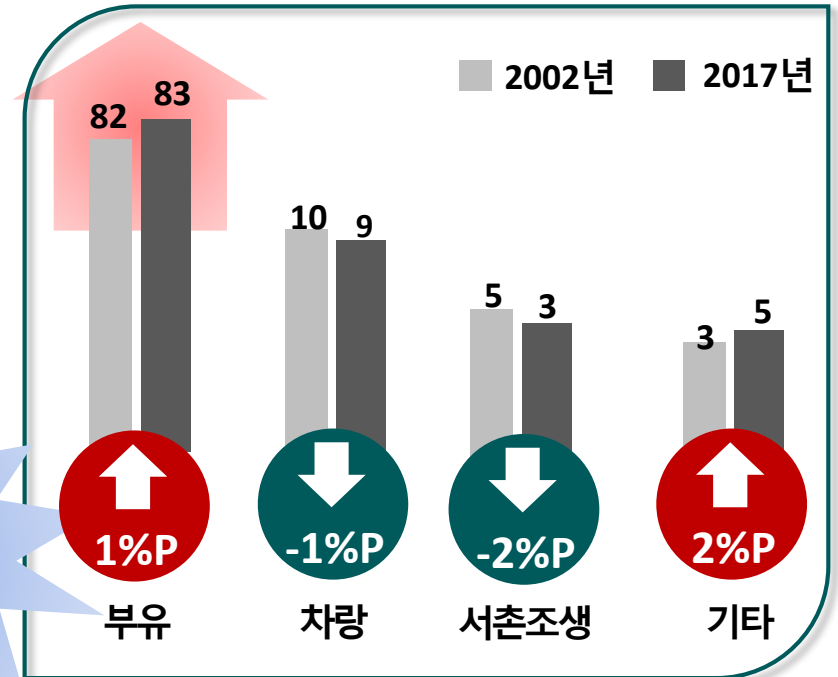
포도 (연평균 -4.6%)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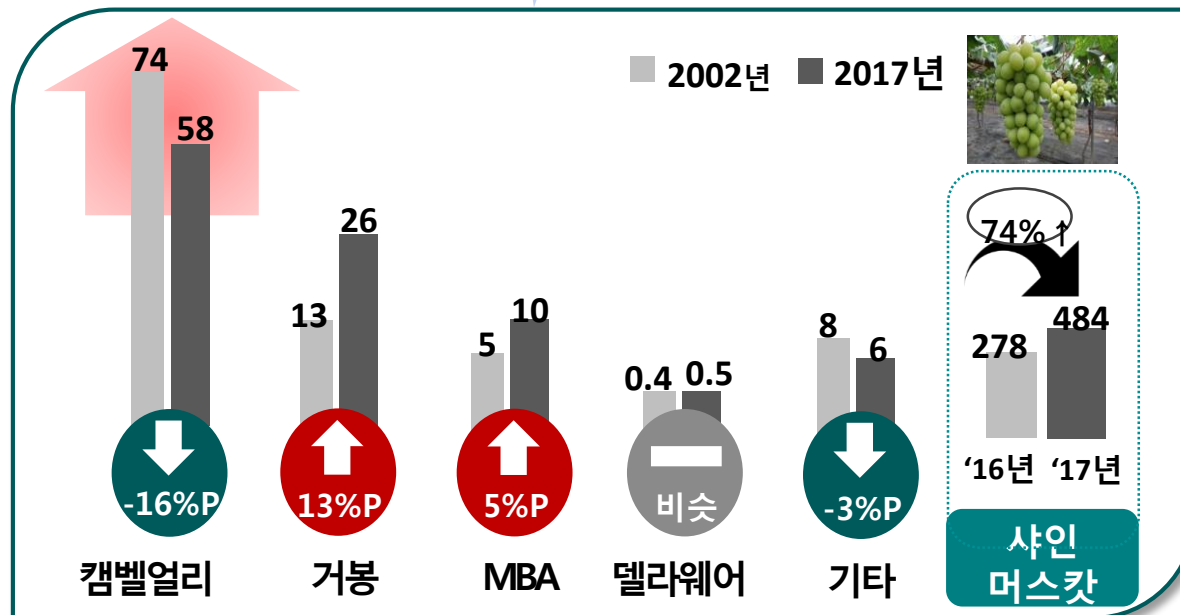


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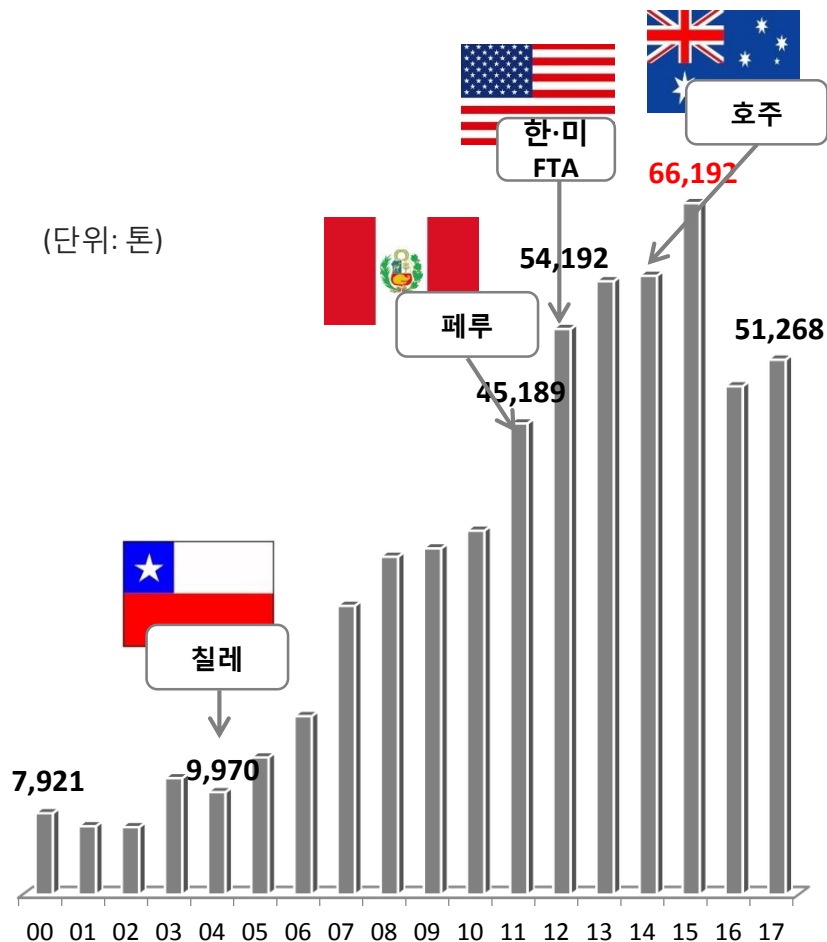
품종 편중 심화

포도



포도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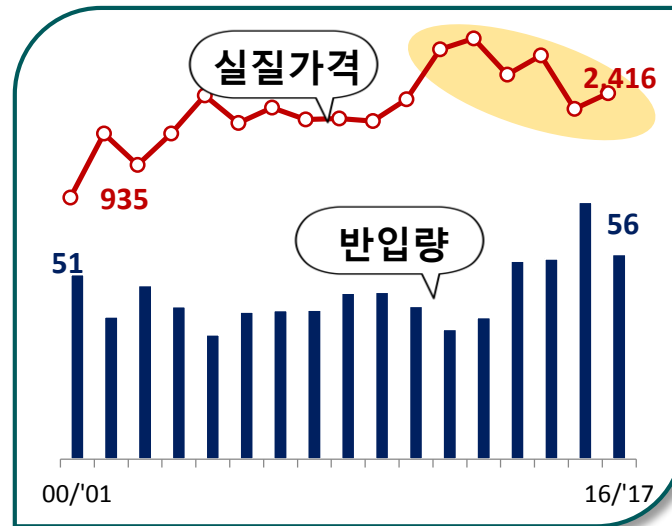
- ✓ 2017년 포도 수입량은 전년보다 5% 증가
- ✓ 주요 수입국(2017년 기준): 칠레(67.1%), 미국(19.8%), 페루(14.7%), 호주(0.3%)
- ✓ 2018년 국내산 포도 출하기(5~10월) 미국 관세 26.4%로 전년 대비 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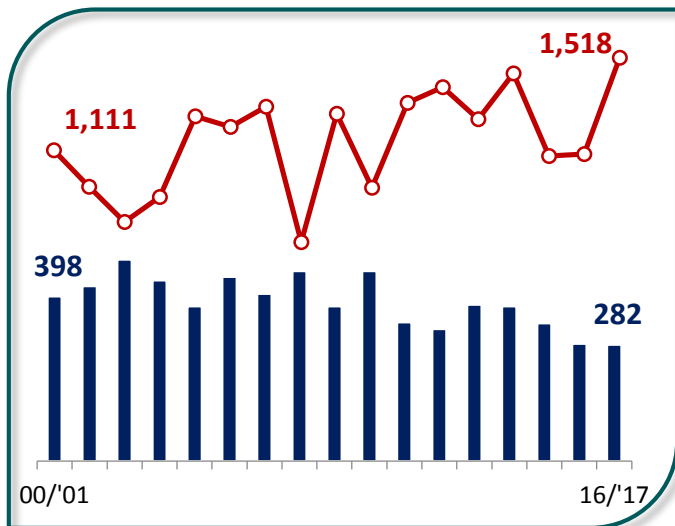
수출국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수입 기간	2017	2018	2019	2020
칠레	45	5~10월	45.0	45.0	45.0	45.0
		11~4월	0	0	0	0
미국	45	5월~10월15일	29.1	26.4	23.8	21.2
		10월16일~4월	0	0	0	0
페루	45	5~10월	45.0	45.0	45.0	45.0
		11~4월	0	0	0	0
호주	45	5~11월	45.0	45.0	45.0	45.0
		12~4월	6.0	0	0	0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사과 (단위: 원/kg,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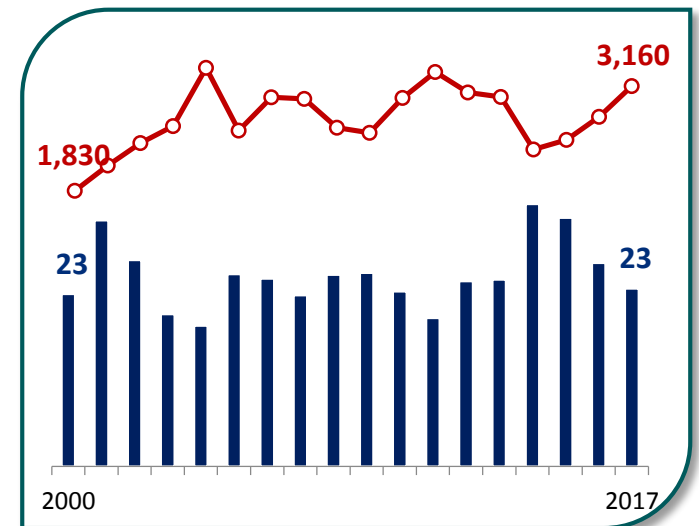


감귤 (노지)



실질가격
상승 추세
(2000년 이후)

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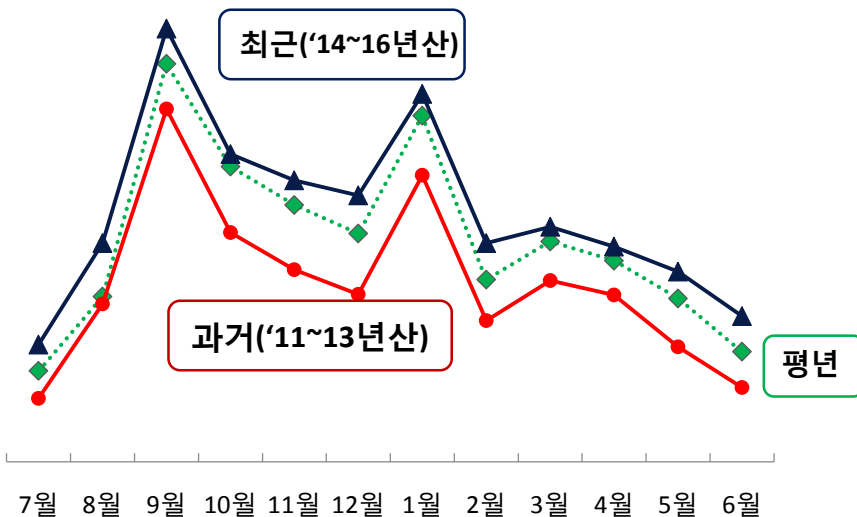


사과 월별 반입량과 실질가격 변화

- ✓ 최근 사과 반입량은 과거보다 **41%** 증가, 실질가격 **15%** 하락
- ✓ **장기저장기**(3~6월) 월별 가격 상승률 과거 **13%**, 최근 **5%**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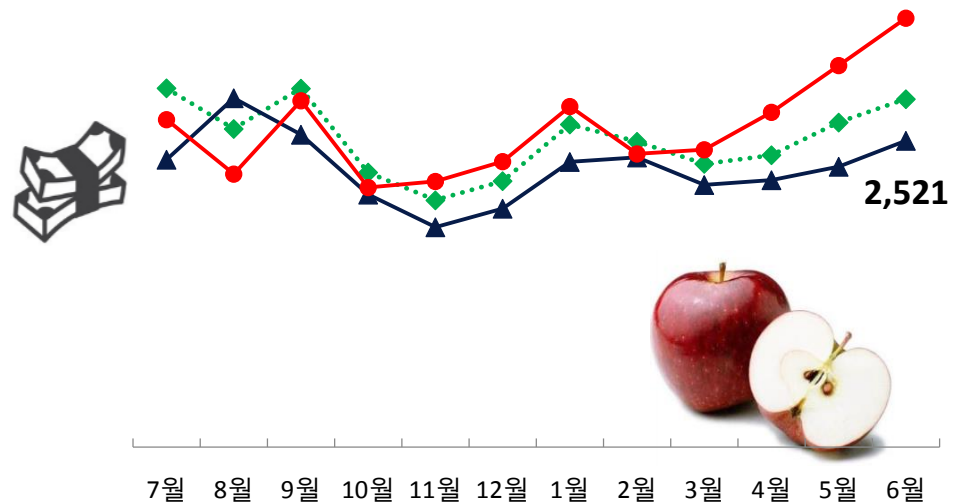
반입량

(단위: 톤)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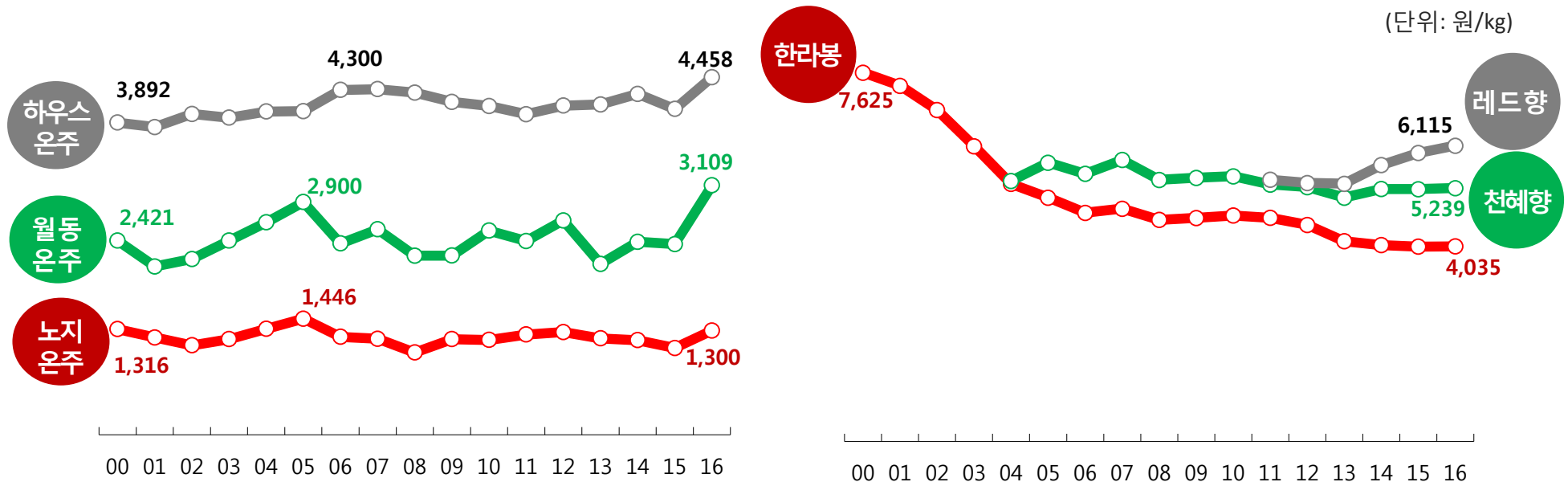
(단위: 원/kg)



주: 가격은 평균단가(금액/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통계청

감귤 품종별 실질가격 변화 (3년 이동평균)

✓ 일반 노지온주에 비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의 만감류 가격은 3~4배 높게 형성



주: 가격은 평균단가(금액/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제주감귤출하연합회, 통계청

감귤류 품종별 당도와 거래단가(2012-2016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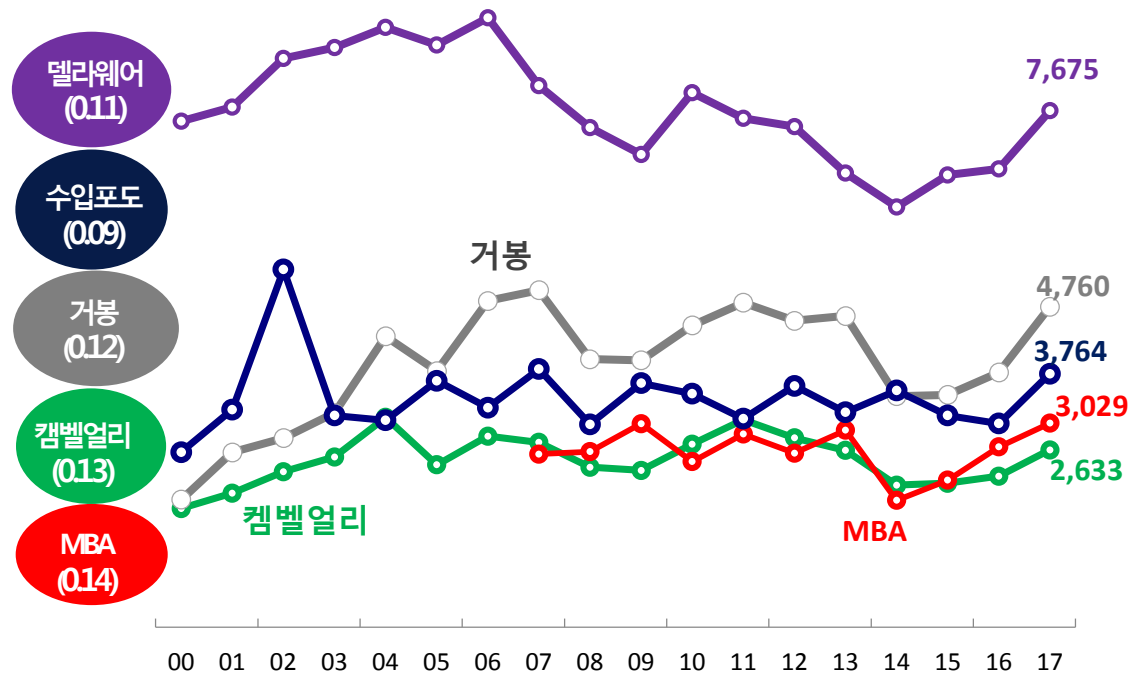
	주 출하시기	당도(°BX)	평년거래단가(원/kg)	가격수준
일반노지감귤	10월~익년 2월	9.5~11	1,309	100.0
한라봉	12월~익년 3월	12~13	4,190	320.1
천혜향	익년 1~3월	11~13	5,322	406.6
레드향	익년 1~2월	13~14	5,634	430.4

포도 품종별 실질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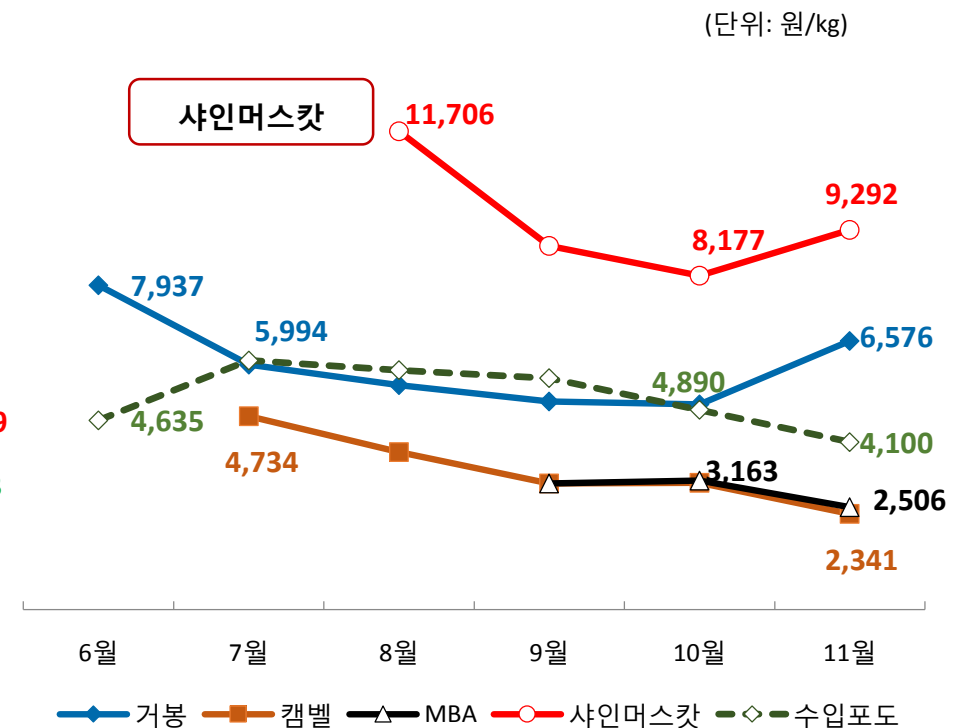
✓ 수입포도 가격 변이계수 0.09로 가장 낮아

✓ 샤인머스캣 가격은 캠벨얼리의 **2.9배**,
거봉 보다 **1.7배** 수준

포도 품종별 실질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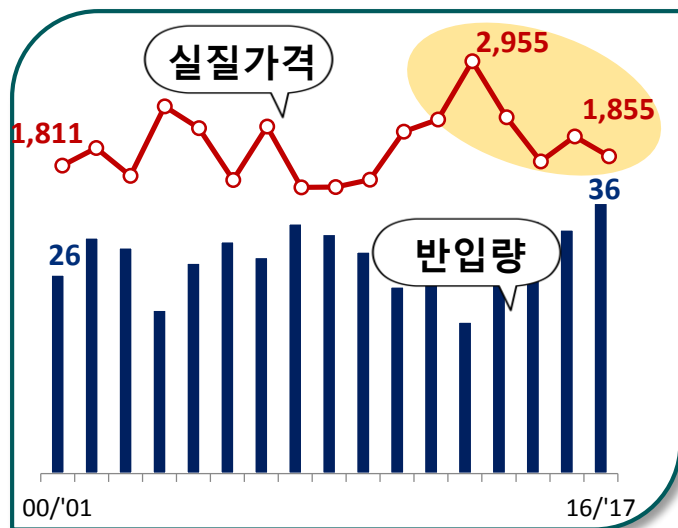


포도 월별 도매가격 (2017년 상품, 1kg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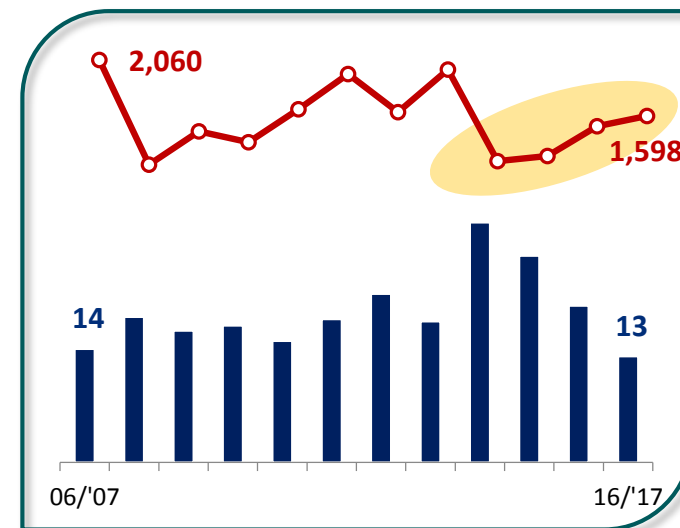


주: 가격은 평균단가(금액/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통계청

배 (단위: 원/kg,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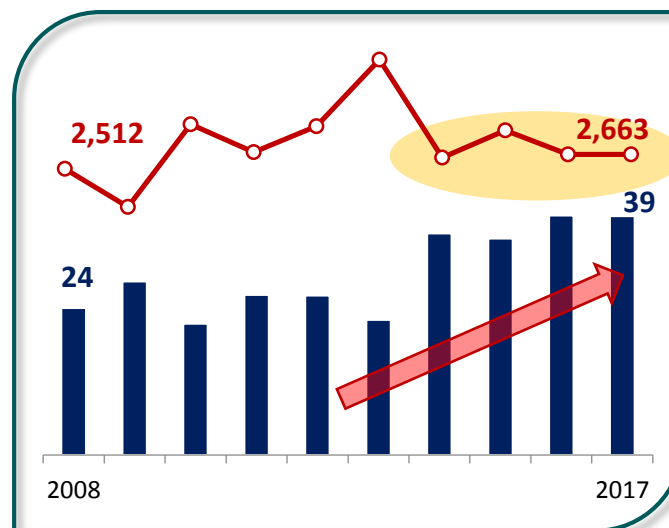


단감



실질가격
하락or 정체

복숭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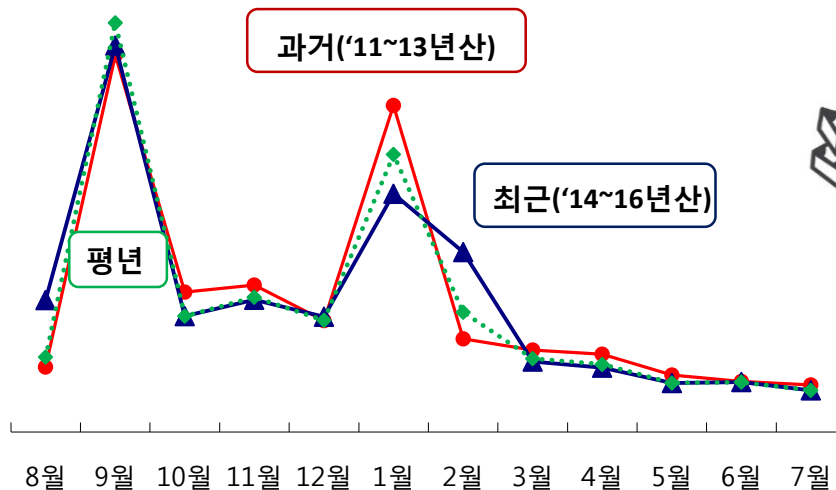


배 월별 반입비중과 실질가격 변화

- ✓ **추석(9월)과 설(1~2월)** 반입 비중이 전체의 **50%** 수준
- ✓ 최근 반입량 과거보다 33% 많아 **실질가격 2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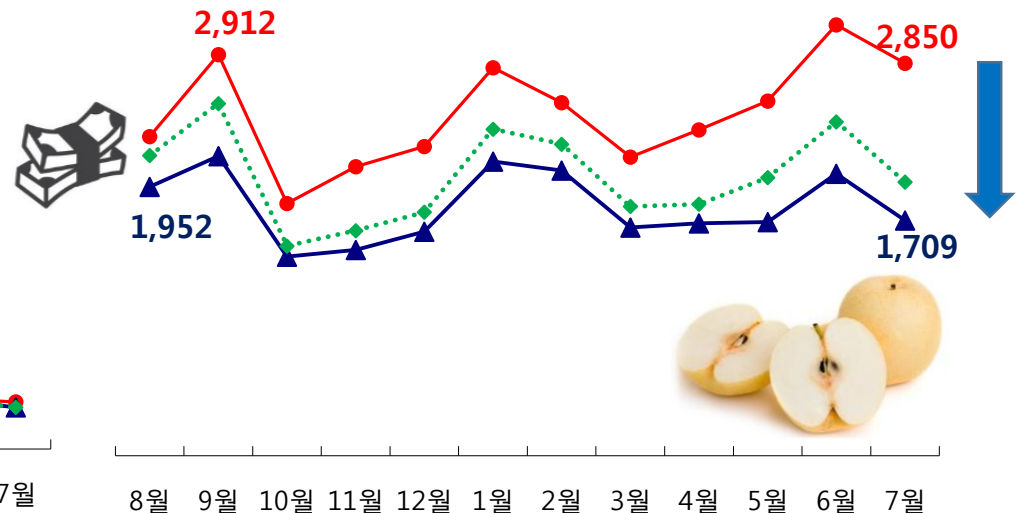
반입비중

(단위: %)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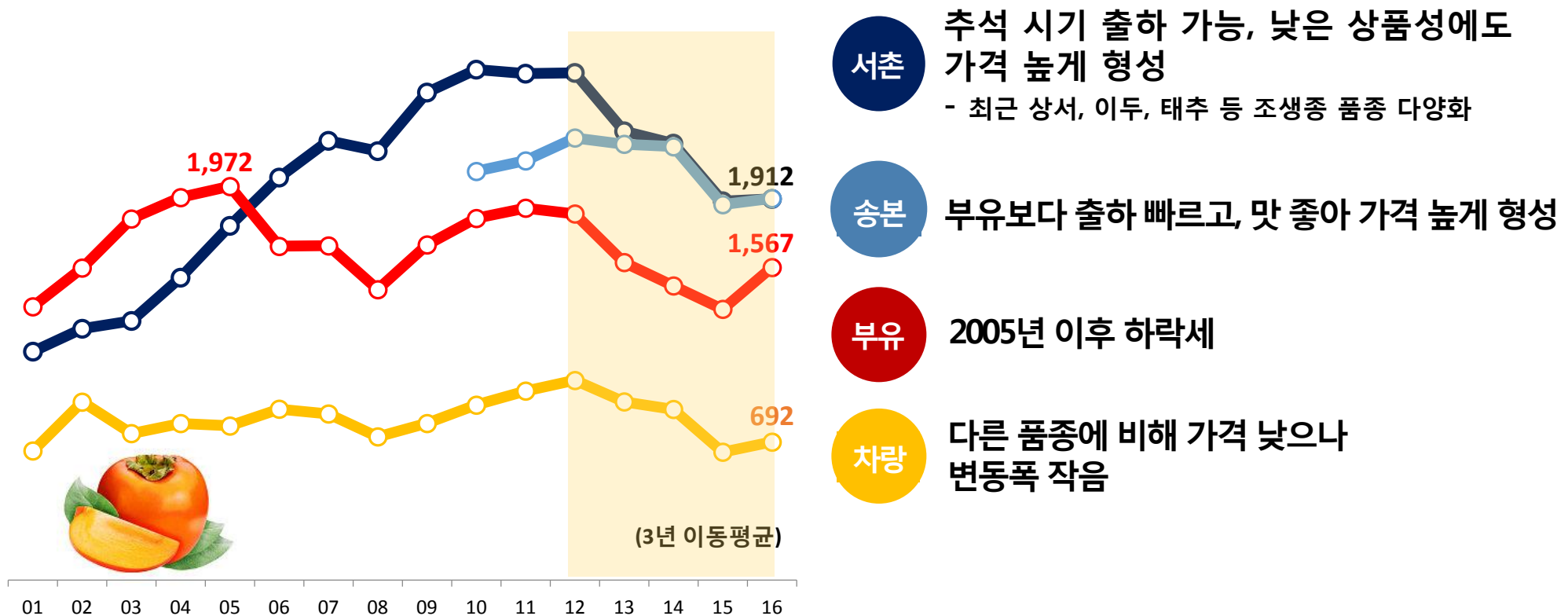
(단위: 원/kg)



주: 가격은 평균단가(금액/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통계청

단감 품종별 실질가격 변화

(단위: kg/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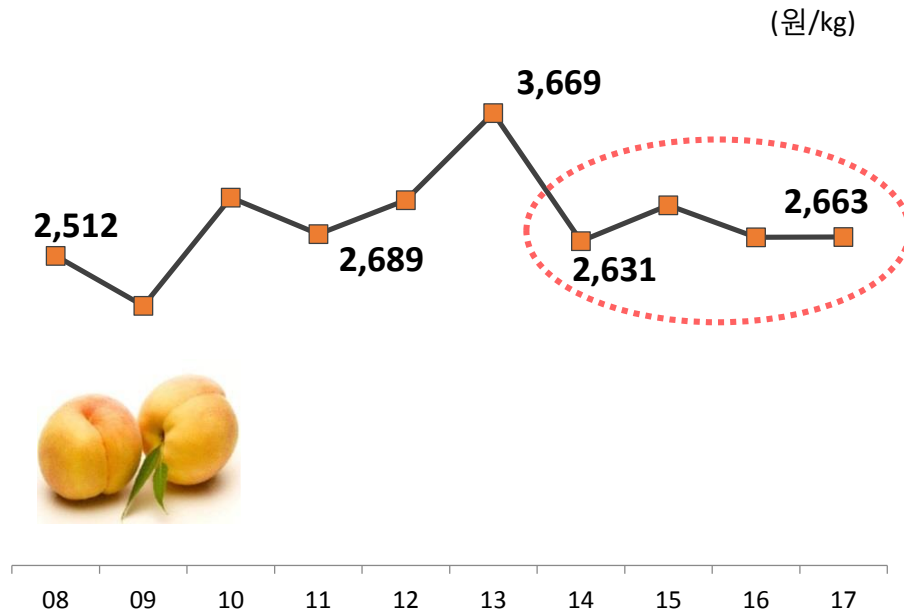
- 서촌** 추석 시기 출하 가능, 낮은 상품성에도 가격 높게 형성
- 최근 상서, 이두, 태추 등 조생종 품종 다양화
- 송본** 부유보다 출하 빠르고, 맛 좋아 가격 높게 형성
- 부유** 2005년 이후 하락세
- 차랑** 다른 품종에 비해 가격 낮으나 변동폭 작음

주: 가격은 평균단가(금액/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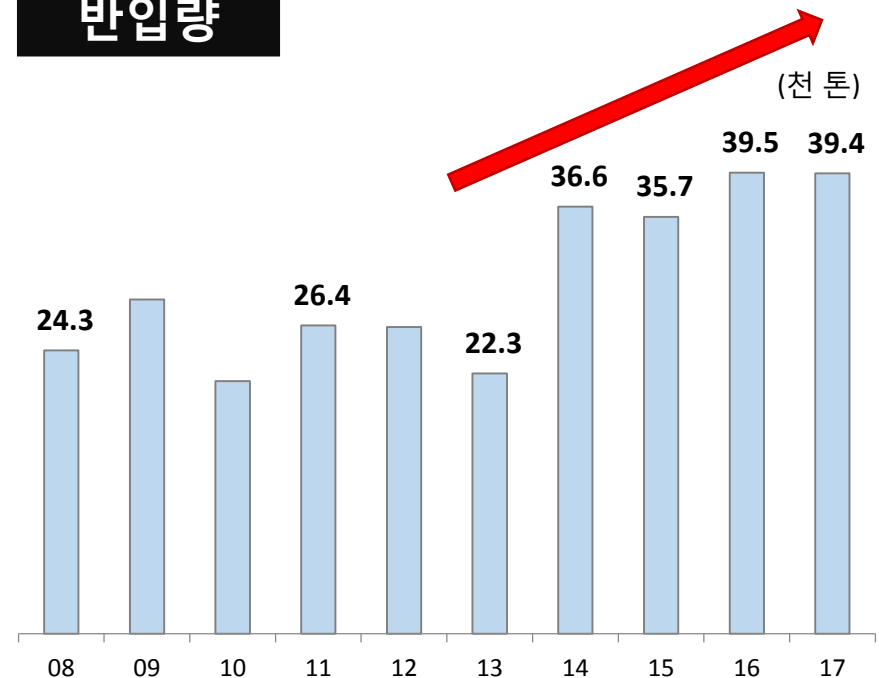
복숭아 연도별 실질가격 변화

- ✓ 복숭아 반입량 연평균 **6%** 증가, 가격은 **1%** 상승
- ✓ 2014년 이후 복숭아 가격 **2,600원/kg** 수준

실질가격



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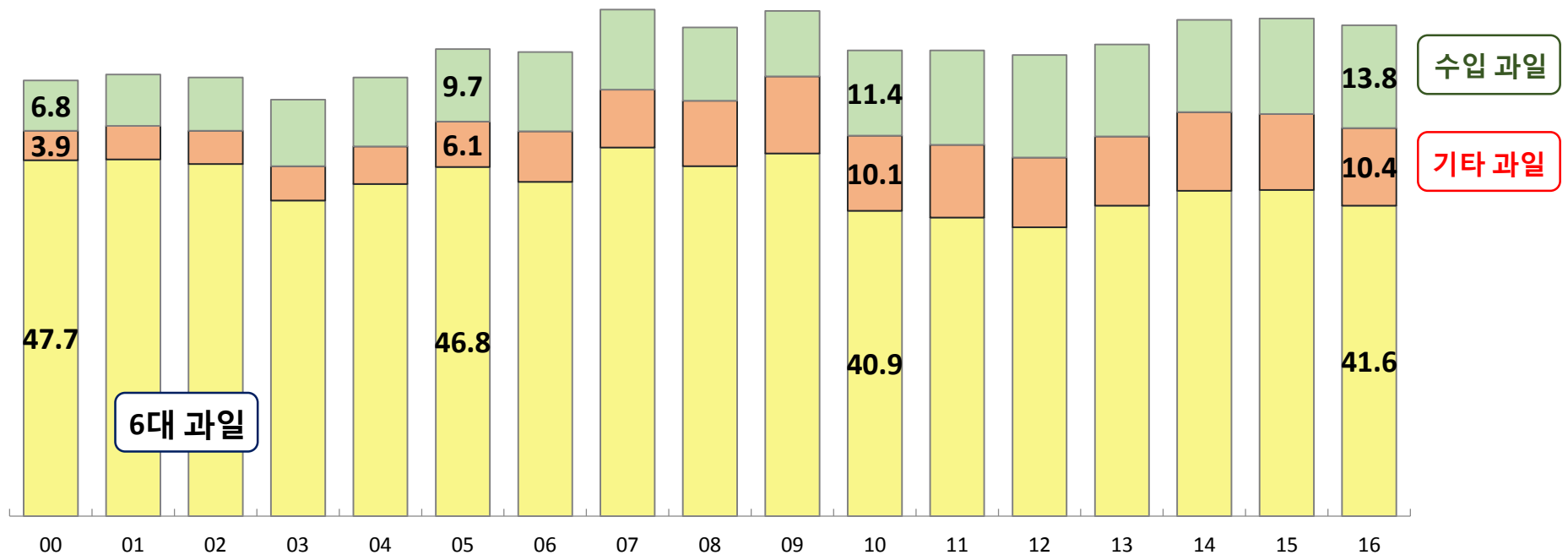
주: 가격(5~11월)은 평균단가(금액/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통계청

3. 과일 소비 트렌드 분석

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

- ✓ 과일 전체 1인당 소비량 최근 66kg 내외 **정체**
 - 6대 과일 2000년 47.7 → 2016년 41.6kg **감소**
 - 기타과일 6.8 → 13.8kg **증가**, 수입과일 3.9 → 10.4kg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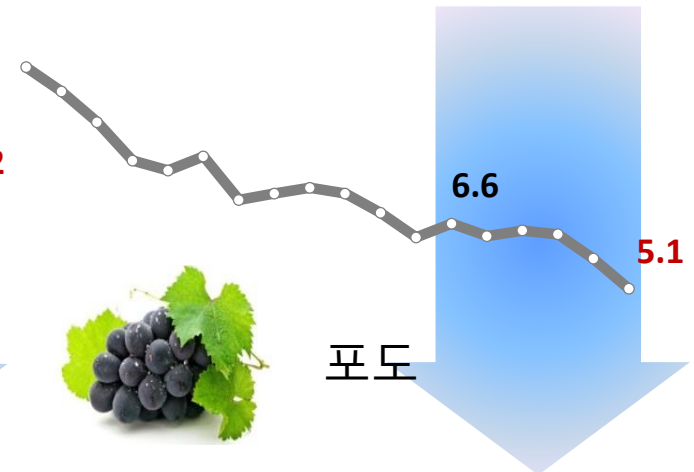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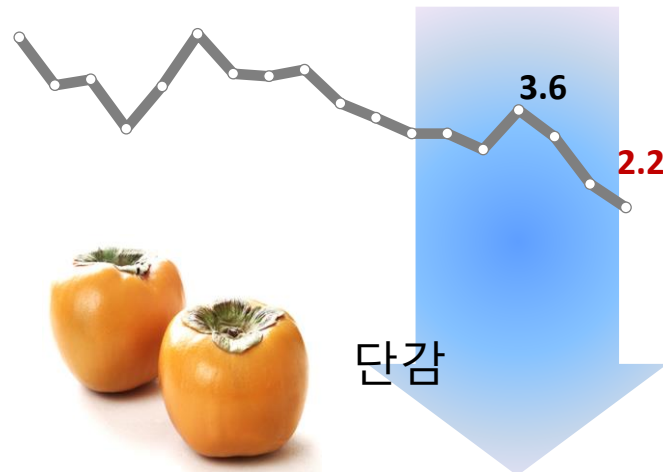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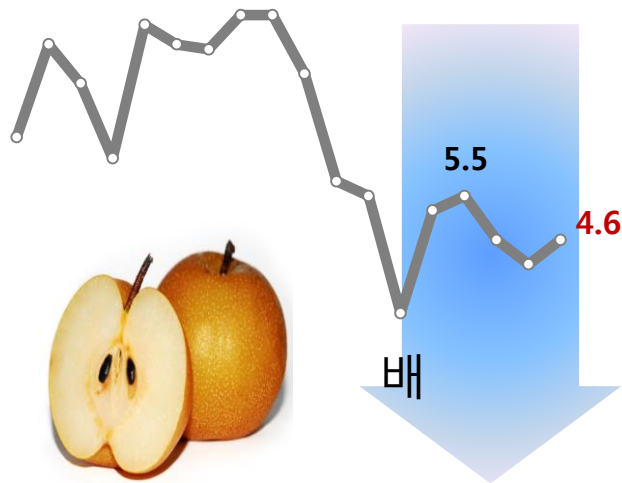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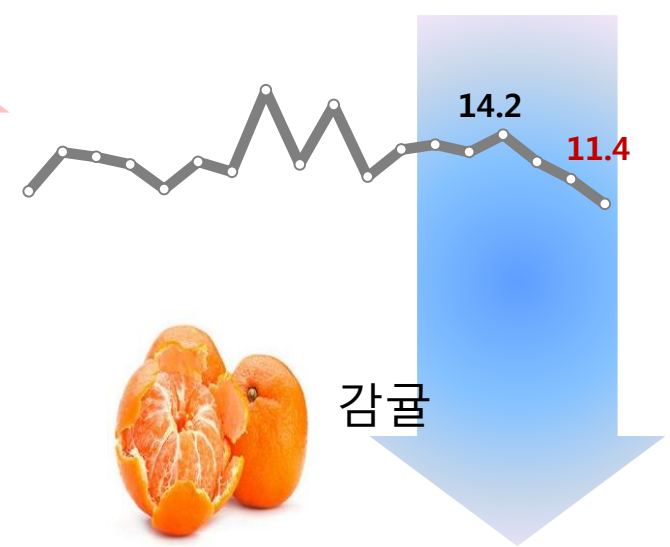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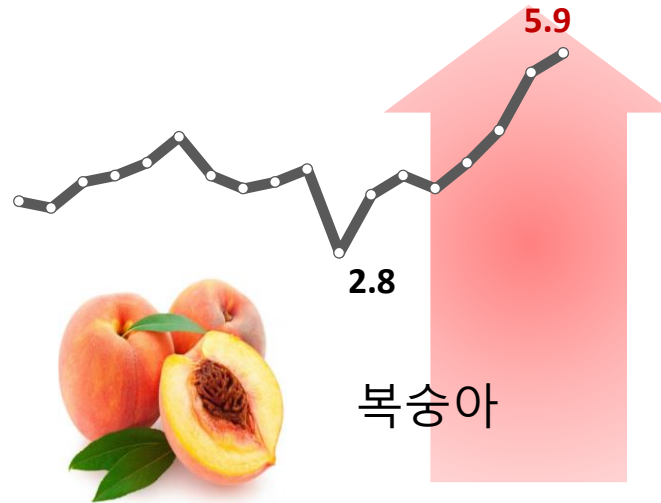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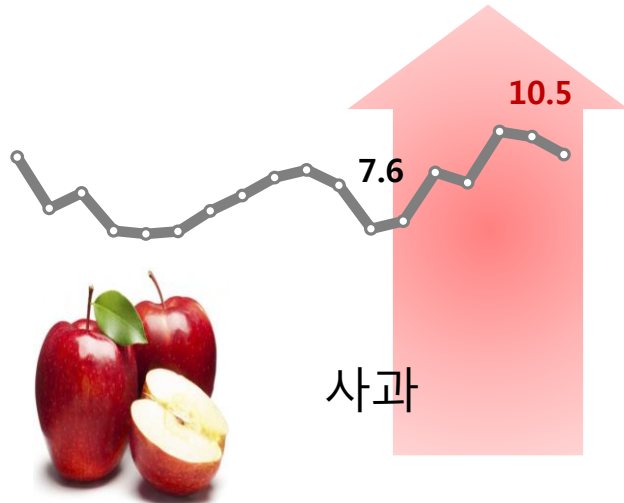
(단위:kg)



주: 포도 수입량은 6대 과일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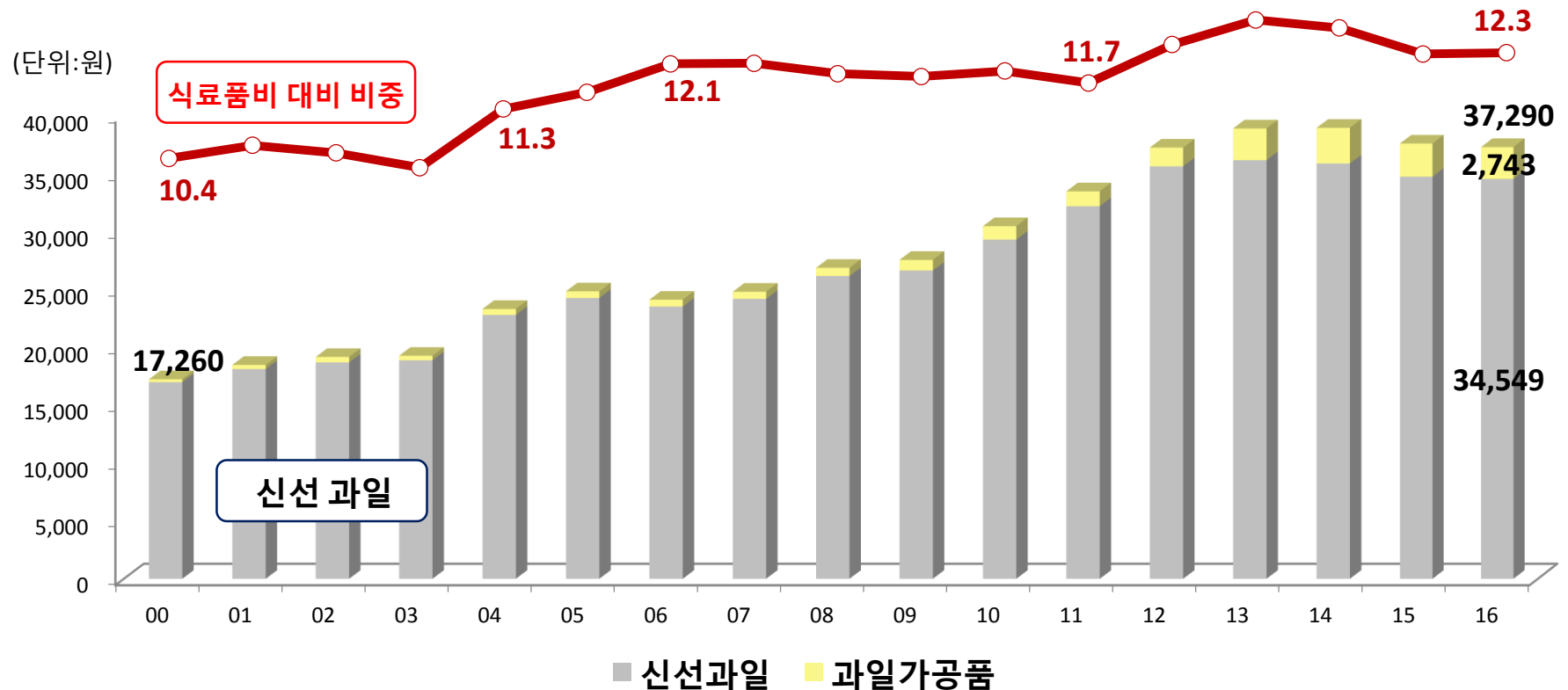


주요 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



과일 및 과일가공품 지출액 추이

- ✓ 과일 및 과일가공품 월평균 지출액은 매년 5% 증가(신선 5%, 과일가공품 16%)
- ✓ 전체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00년 10% → '16년 12%



주: 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으로 디플레이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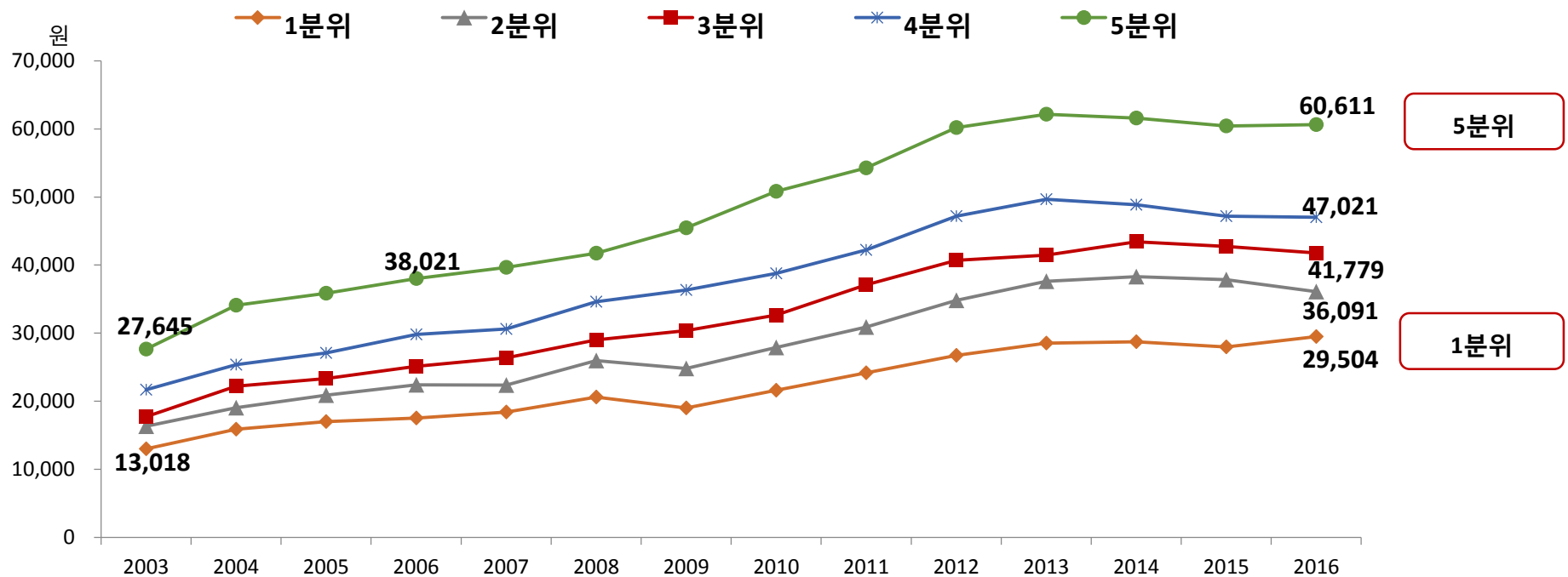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원격접근서비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분석, 박미성 외(2017:15) 재인용

소비자의 소득수준별 과일류 소비

✓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중 과일 및 과일가공품 지출비중 높아

- 과일류 지출비중: (1분위) 2003년 9.3% → 2016년 11.3% (5분위) 11.4% → 13.6%
- 2016년 5분위의 과일류 지출액은 6만 1천원으로 1분위 대비 2.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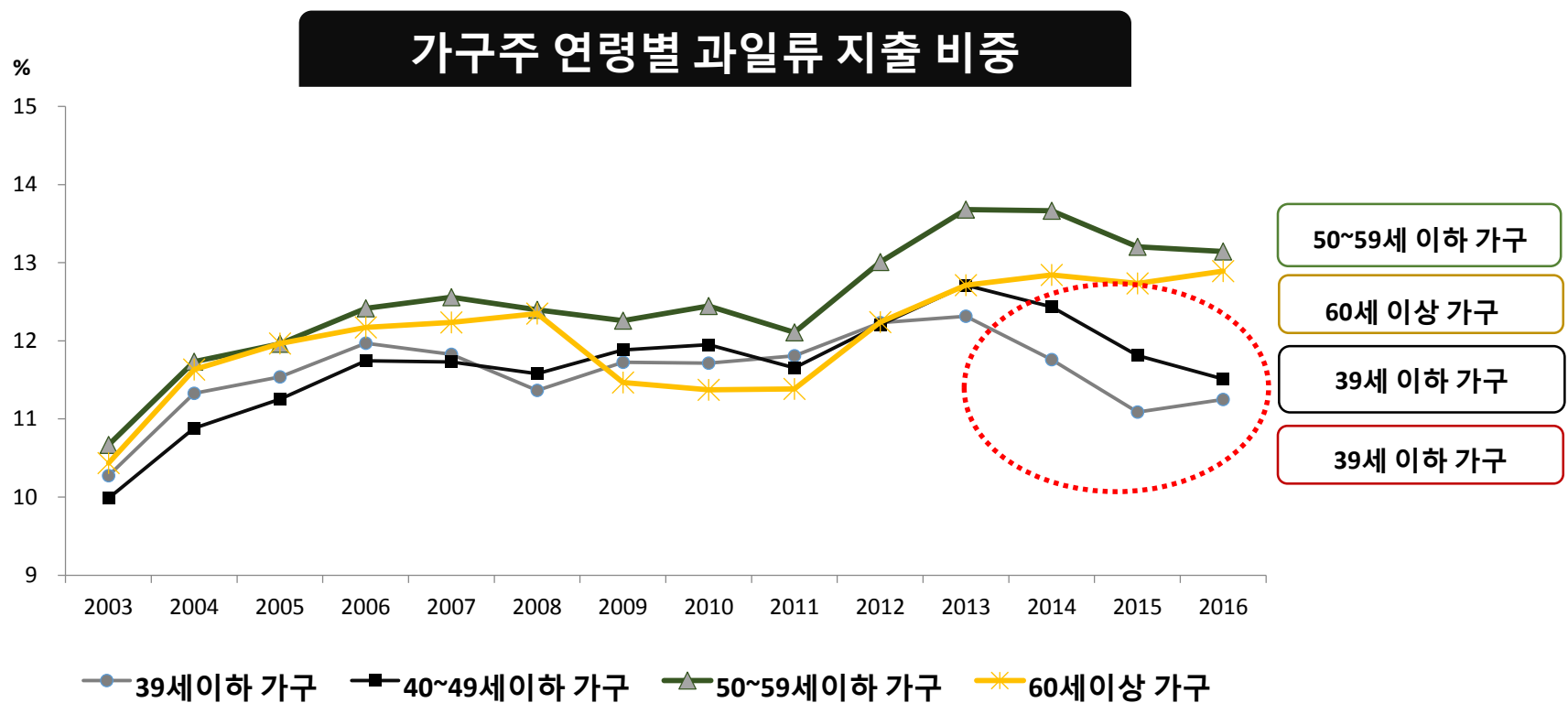
소득분위별 과일 및 과일가공품 지출금액(2015=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주 연령별 과일류 소비

- ✓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 중에서 과일류 지출 비중이 높아
- 최근 들어 49세 이하 가구의 과일류 지출비중이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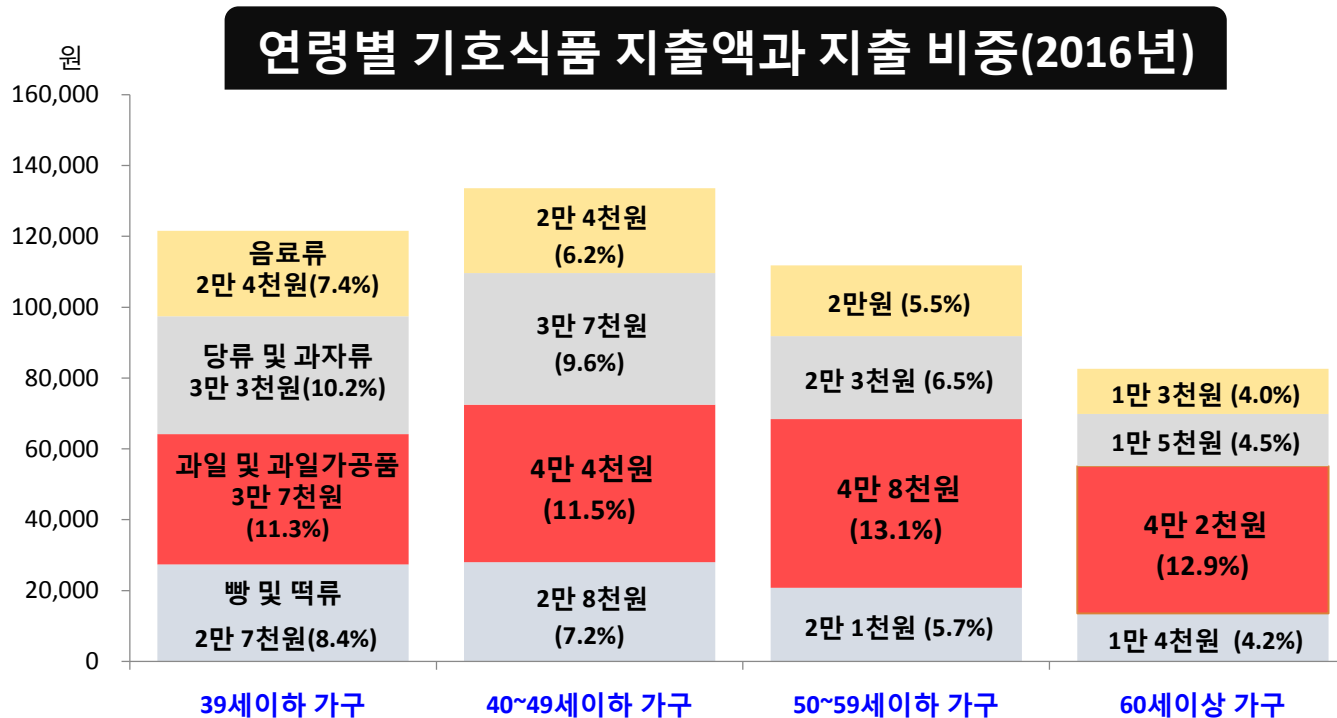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녀수별 기호식품 소비

✓ 가구주 연령이 젊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기호식품을 소비하는 경향

- 기호식품 비중: 39세 이하(37%), 40~49세(35%), 50~59세(31%), 60세 이상(26%)
- 부류별로는 과일 및 과일가공품 > 당류·과자류 > 빵·떡류 > 음료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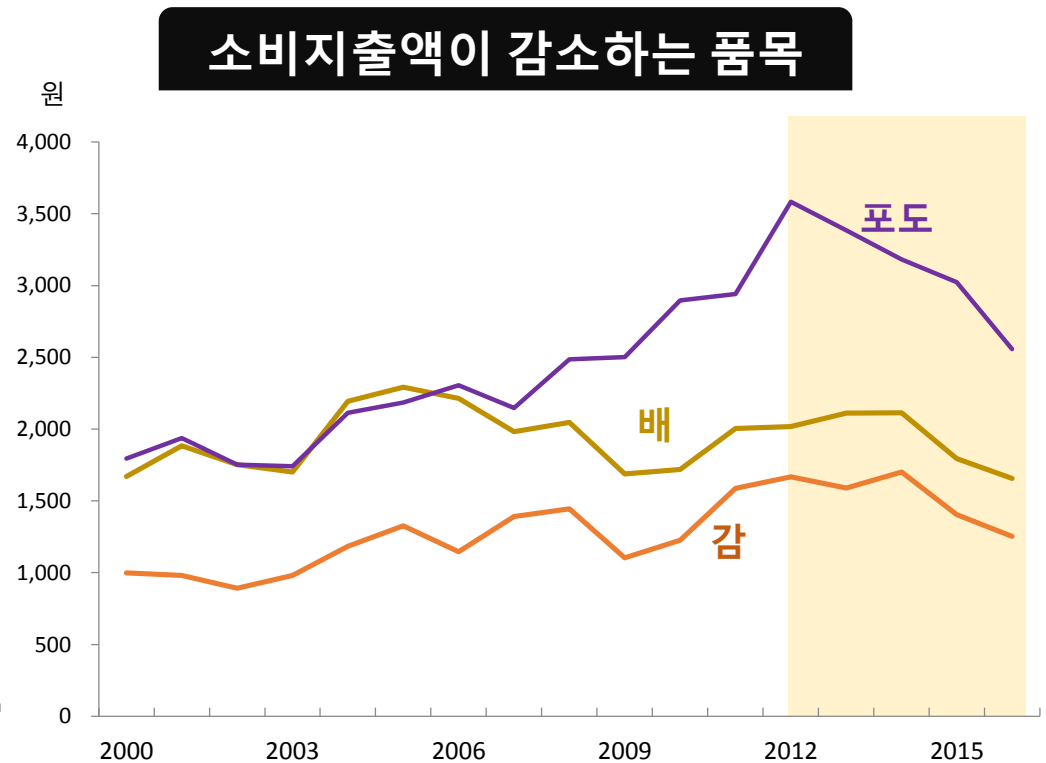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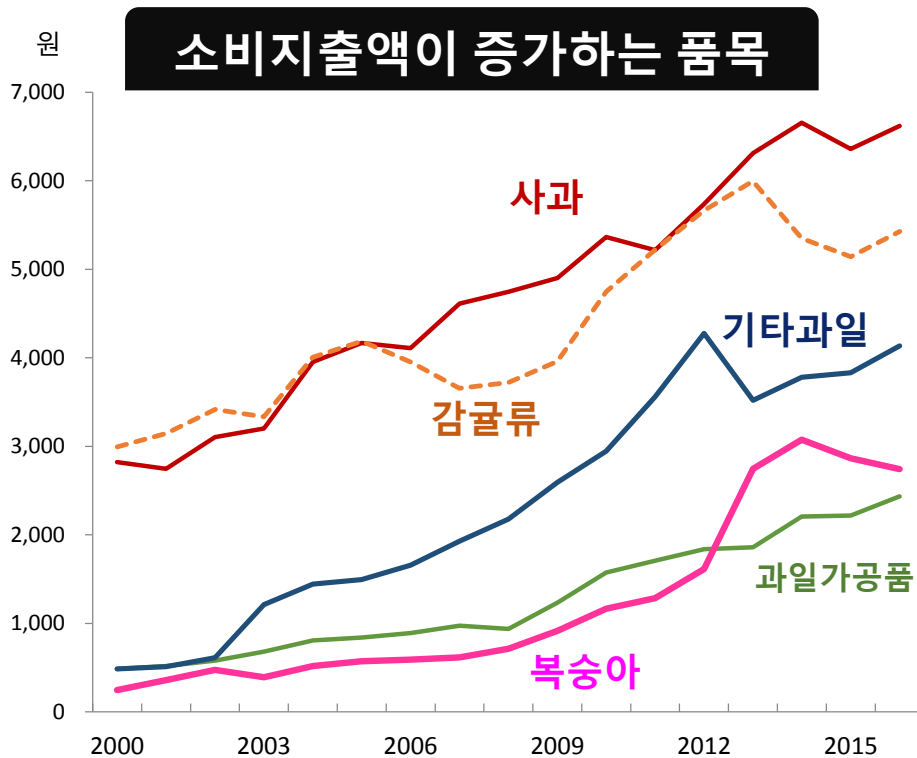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식료품비 중 해당 지출의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과일 및 과일가공품 지출액 품목별 추이

✓ 소비지출액이 **증가**하는 품목: 사과, 복숭아, 감귤류

- 특히, 과일가공품(16%), 기타과일(14%), 복숭아(9%)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 크게 나타나

✓ 2012년 이후 소비지출액이 **감소**하는 품목: 배, 단감, 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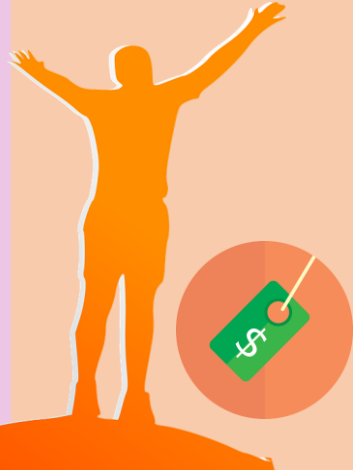


주: 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으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원격접근서비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분석, 박미성 외(2017:15) 재인용

최근 소비트렌드 특징

✓ 최근 소비트렌드 특징을 크게 **5가지**로 구분

다양화 추구	건강기능성	당도 선호	편의성 추구	가성비 추구
				
구입 가능한 신선과일 종류 27종(2000년)→ 38종(2016년) 증가	기능성 성분 다이어트 식단 요리법 소개 아침과일 섭취량 증가 등	성인·청소년 달콤한 과일 선호 비중 높아	껍질째먹는 과일 껍질 분리가 쉬운 과일 신선편이과일 소용량·소포장	가정 소비용 중·소과 선호
과일 품종의 다양화	건강 관련 소비 및 관심 증가	맛에 대한 선호 증가	섭취편의성 구매와 이동 편의성	

- ✓ 수입 확대와 재배 품목 및 품종 다양화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의 종류가 늘어나고, 과일 소비의 다양성이 진전됨.

다양화 추구



구입 가능한
신선과일 종류
27종(2000년)→
38종(2016년) 증가

과일 품종의 다양화

소비자가 구입 가능한 신선과일의 종류

	2000년	2016년
국내산	감귤, 단감, 딸기, 뽕은감, 메론, 무화과, 배, 복숭아, 사과, 산딸기, 살구, 석류, 수박, 애플, 오디, 유자, 자두, 참외, 체리, 키위, 토마토, 포도 (22종)	감귤, 구아바 , 단감, 딸기, 뽕은감, 레드향 , 망고 , 멜론, 무화과, 배, 복숭아, 블루베리 , 사과, 산딸기, 살구, 석류, 수박, 애플, 오디, 유자, 자두, 참외, 체리, 키위, 토마토, 포도, 파파야 , 패션프루트 (28종)
수입산	레몬, 바나나, 석류, 오렌지, 자몽, 체리, 키위, 파인애플, 포도 (9종)	두리안 , 레몬, 망고 , 망고스틴 , 바나나, 블루베리 , 석류, 포도, 아보카도 , 오렌지, 자몽, 체리 , 코코넛, 키위 , 파인애플 , 파파야 , 멜론 (17종)
합계	27종	38종

주 1) 빨간 글자는 2000년에 국내에서 재배 혹은 수입이 되지 않았었지만, 2016년에는 국내 재배 혹은 수입이 되는 품목임.

2) 밑줄은 수입이 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재배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일임.

자료: 박미성(2017)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 추이

단위: 톤								
구분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키위	자몽	레몬	체리
1990년	21,834	440	-	-	-	3,484	-	81
2000년	184,213	99,017	21,790	7,921	5,228	1,813	-	194
2016년	364,581	154,944	77,376	49,025	30,736	23,169	15,247	13,818
구분	망고	석류	아보카도	블루베리	멜론	망고스틴	두리안	파파야
1990년	-	-	13	-	-	-	-	-
2000년	421	46	58	-	40	-	-	3
2016년	11,347	4,950	2,915	1,968	1,748	402	254	116

주: 블루베리는 HS CODE 0810.40.0000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건강기능성



기능성 성분
다이어트 식단
요리법 소개
아침과일 섭취량
증가 등

건강 관련 소비
및 관심 증가

과일 선호 품목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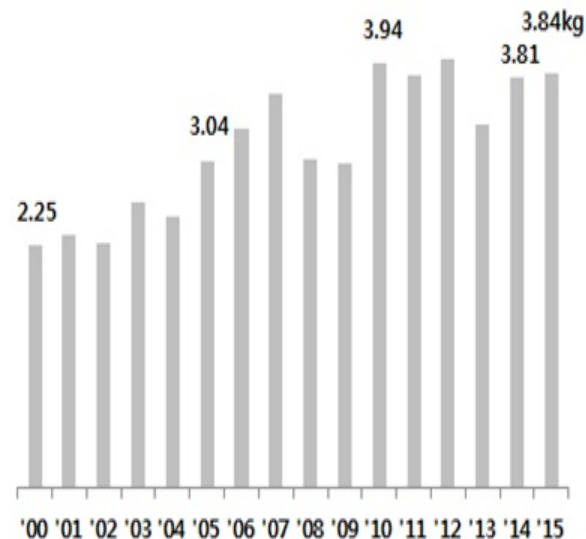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맛	건강기능성	품질	취급·섭취 간편성	안전성	기타	응답수
전체	47.0	22.9	15.2	13.9	0.7	0.4	11,350
성인	46.1	24.6	14.3	13.9	0.7	0.4	9,714
청소년	51.8	12.6	20.5	13.9	0.6	0.6	1,636

자료: 이용선 외(2014: 60),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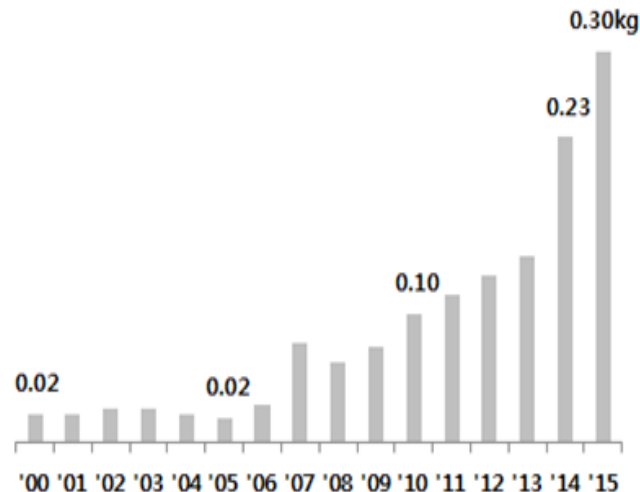
- ✓ 언론에서 기능성 성분이나 다이어트 식단, 요리법 등이 소개되면 해당 과일 소비 크게 증가
- ✓ 아보카도의 불포화지방산 소개로 소비자 관심 및 수입 급격히 증가
- ✓ 디톡스 열풍으로 바나나, 자몽, 레몬, 깔라만시 등 소비 증가

바나나, 자몽 연간 1인당 소비량 변화



바나나 다이어트와 날개판매

2008년 일본에서 시작된 바나나 다이어트 열풍이 국내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날개 포장된 바나나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바나나 소비 증가



자몽 디톡스(2014년)

2014년부터 시작된 디톡스(Detox) 열풍으로 자몽 소비량 증가. 나리진 성분이 신진대사 촉진하여 다이어트 효과, 레티놀 등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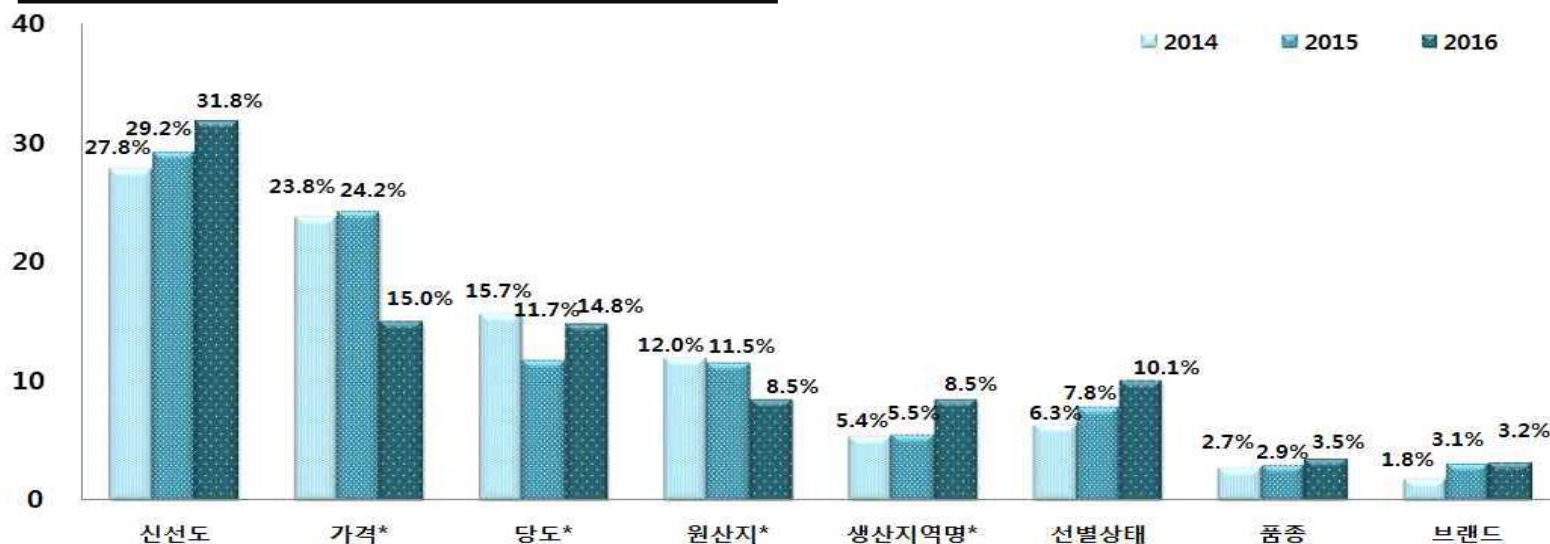
과일류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당도 선호



성인·청소년
달콤한 과일 선호
비중 높아

맛에 대한
선호 증가



주 1) 우선순위 응답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3+2순위×2+3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2) *은 2015년 대비 2016년의 결과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이계임 외(2016: 120), 「2016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 성인이 선호하는 과일은 달콤한 과일, 신선한 과일, 제철과일 순인 반면, 청소년은 달콤한 과일에 대한 선호가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음

성인과 청소년의 선호 과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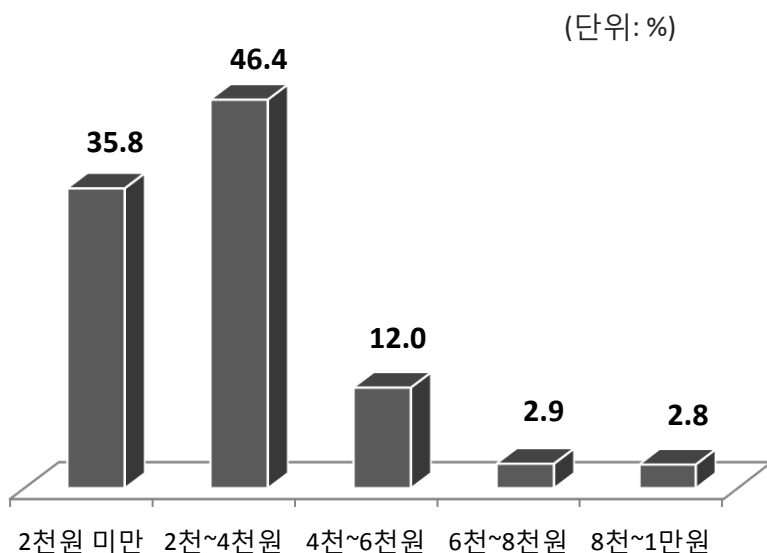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달콤한 것	새콤한 것	신맛, 단맛 균형	향기 좋은 것	식감 좋은 것
성인	44.7	27.5	26.0	16.3	27.3
청소년	58.8	34.1	33.5	19.4	26.1
구분	신선한 것	제철과일	먹기 쉬운 것	건강에 좋은 것	
성인	41.7	40.9	14.2	11.9	
청소년	28.0	31.7	16.2	5.1	

자료: 이계임 외(2016: 126), 「2016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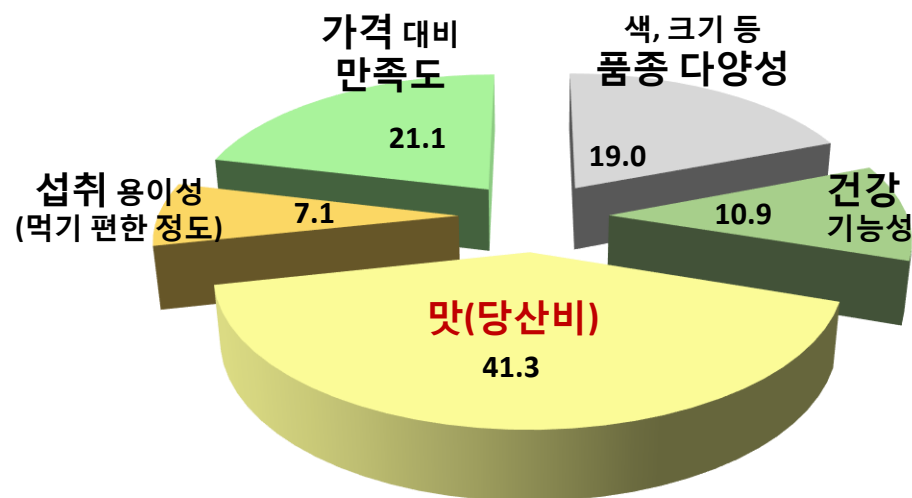
- ✓ 당도 높은 과일에 대한 소비자 선호로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함. 재배품종이 고당도 품종으로 전환되거나, 수입과일 중에서는 고당도 프리미엄 품종의 수입비중이 증가함.
- ✓ 당도 높은 감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은 **2,000~4,000원 46%** (평균1,518원/1kg)
- ✓ 감귤 소비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맛(당산비)'**
 - 제주도 감귤유통명령제 상품 출하 기준도 크기에서 맛으로 변경
 - 농가는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방식 전환 및 철저한 품질 관리 필요

고당도 감귤에 대한 지불의향



소비촉진 개선사항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4.12.23.~12.27, 623명/2017.12.26.~12.27, 697명)

편의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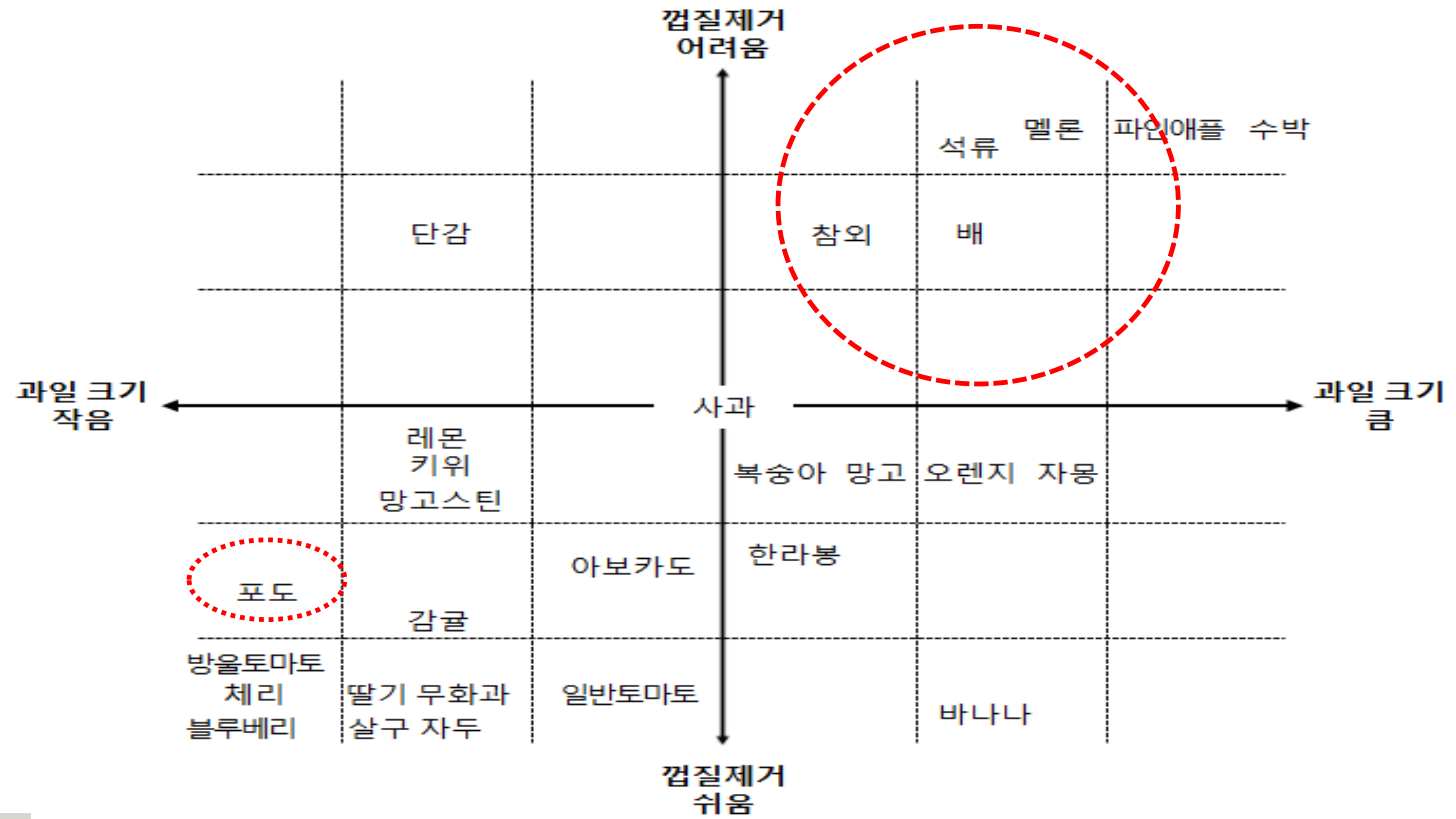


껍질째먹는 과일
껍질 분리가 쉬운 과일
신선편이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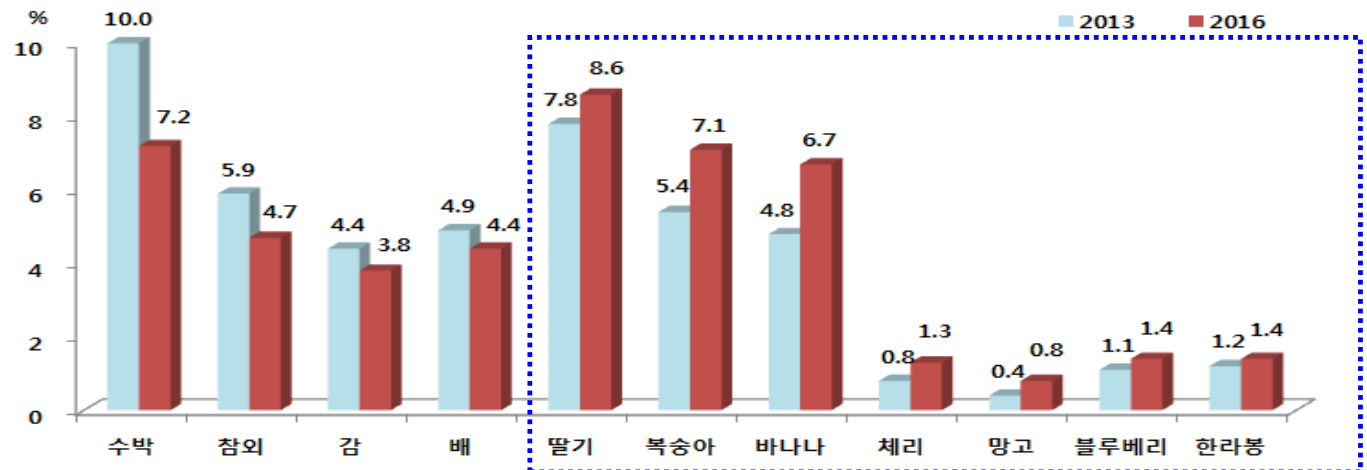
소용량·소포장

섭취편의성
구매와 이동 편의성

과일 품목별 크기와 껍질제거의 어려움 정도



가구의 과일류 품목별 구매금액 비중 변화



자료: 칸타월드패널.



✓신선편의과일과 건조과일가공품의 섭취편이성이 높게 평가됨.

- **섭취편이성 높은 품종 소비 선호**: 샤인머스캣(껍질째 먹는 청포도) 맛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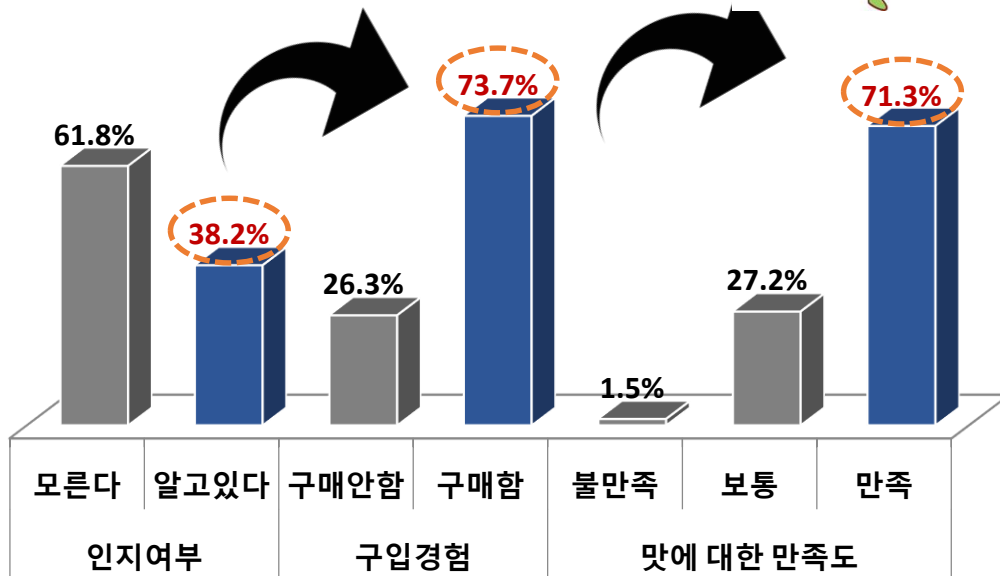
✓가구원수 감소로 소용량·소포장 구매단위 확대, 구매와 이동의 편이성 중요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구입 증가

✓감귤 10kg 상자 출하 비중 97 → 32% 감소, 5kg 상자 2 → 67% 증가

✓ 5kg 상자의 단가 1,635원/kg으로 10kg 상자 단가(1,105원) 대비 **4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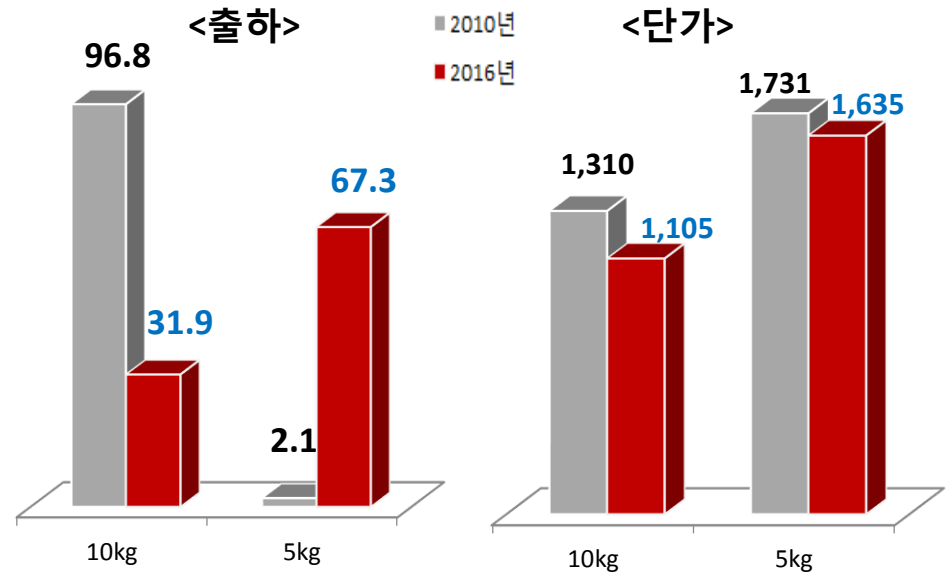
→ 포장재비(kg당 40원 포장비 추가 발생) 고려하더라도 소포장 거래단가 높게 형성

샤인머스캣 소비자조사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4.12.23.~12.27, 623명/2017.12.26.~12.27, 697명)

감귤 포장단위별 출하비중 및 단가 변화



주 1) 주로 출하되는 포장규격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 출하 물량 비중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2) aT 유통실태 보고서(2016)에 따르면, 10kg 상자 포장재비는 700~930원, 5kg은 500~700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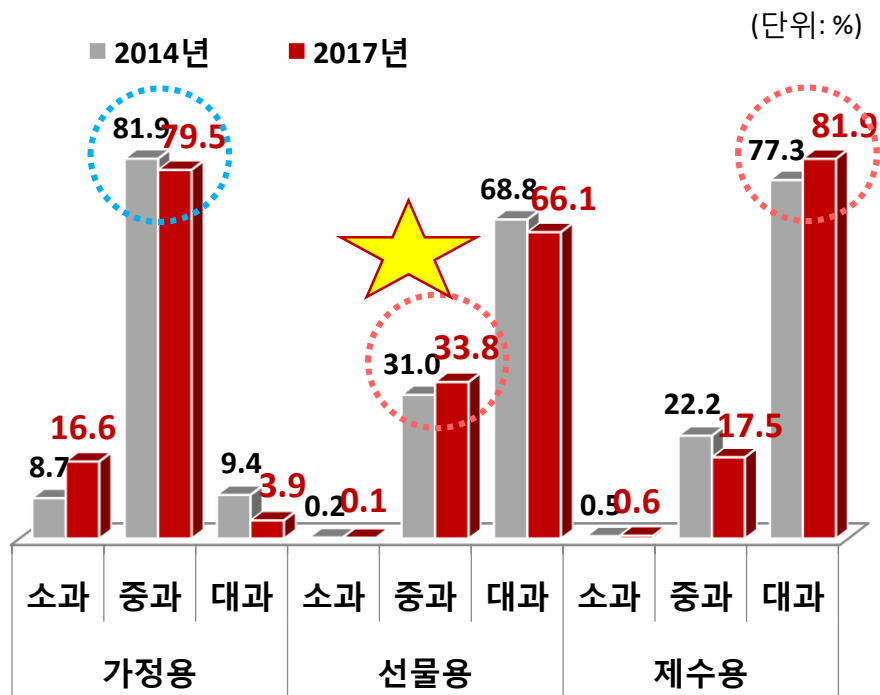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청과법인(중앙청과) 내부자료

가성비 추구

가정 소비용
중·소과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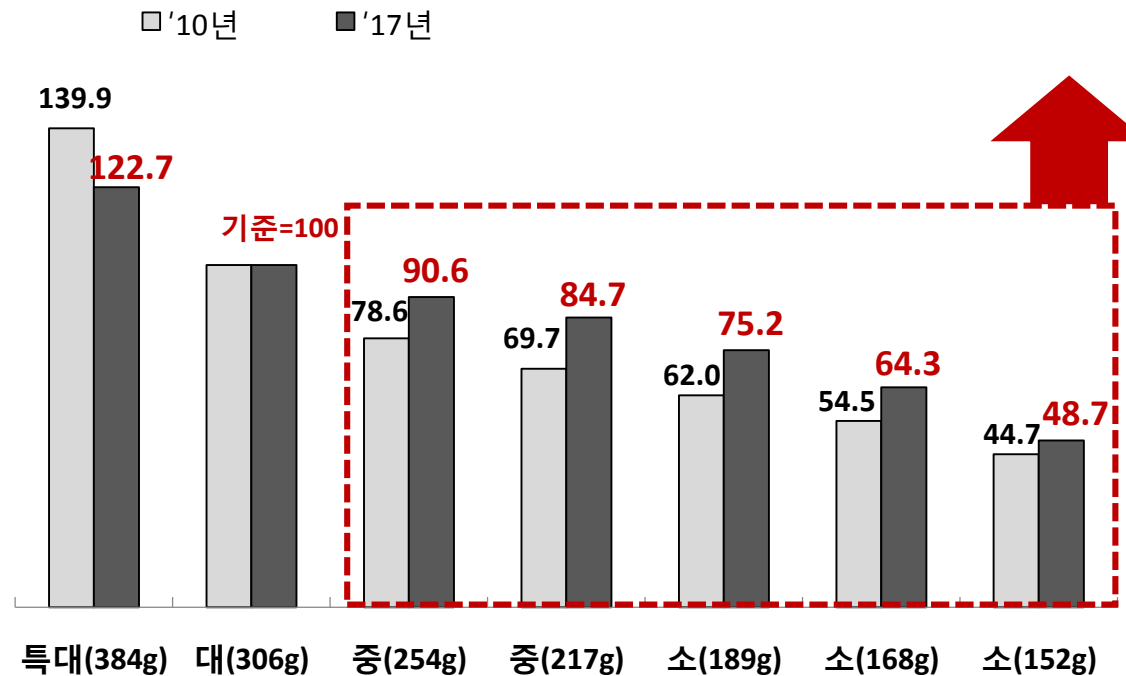
- ✓ 가정용 **중과** 선호, **선물용 중과** 선호 비중 과거보다 3%p 증가
- ✓ 대과 대비 중·소과 가격 과거 대비 **9~22% 상승**, 특·대과 가격 **12% 하락**
- ✓ 일상 소비 증가로 소비자의 과실 선호 크기 변화

사과 용도별 선호크기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
(2014.12.23.~12.27, 623명/2017.12.26.~12.27, 697명)

사과 중량별 가격 수준 변화



주: 1) 안동공판장 사과 30~90내/상자의 개당 무게(g)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 (3L(375이상), 2L(300~374), L(250~299), M(214~249), S(188~213), 2S(167~187))에 따라 대과(2L,3L), 중과(M,L), 소과(S,2S)로 구분하였음.

2) 가격은 대과(306g)가격=100으로 환산한 지수임.

자료: 안동농협공판장(2010~2017년)

4. 요약 및 시사점

맛 주도, 다양화 경향 뚜렷

앞으로의 과일 소비 지출의 증가세는 둔화하면서도

과일 수요는 맛 주도, 다양화 경향이 뚜렷해질 것

- 과일의 **맛**은 필수적 선택기준
- 인구의 노령화 : **건강기능성**이 높은 과일 선호
- 1인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 **간편하고 품질 좋은** 과일 선호

중장기적으로 수입과일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

- 대형 유통체인의 확장
- 외국 식문화 경험 확대
- 동시다발적 FTA와 단계적 식물검역협상 추진

중장기 과일 수입 전망

- ✓ 주요 과일 수입량은 중장기적으로 **증가** 전망
- ✓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 파파야** 등은 수입 확대 가능성 높아

열대과일

단위: 천 톤

2017	2018	2022	2027
659	696	724	785

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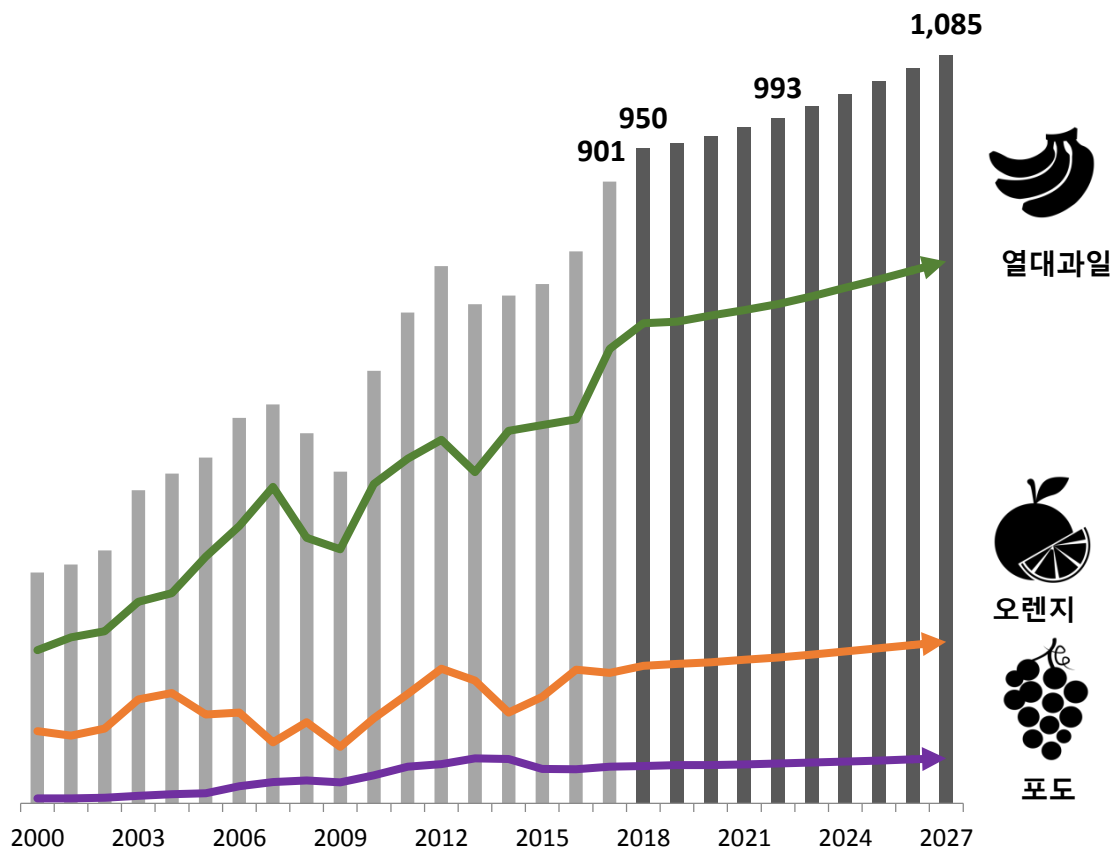
단위: 천 톤

2017	2018	2022	2027
189	200	212	234

수입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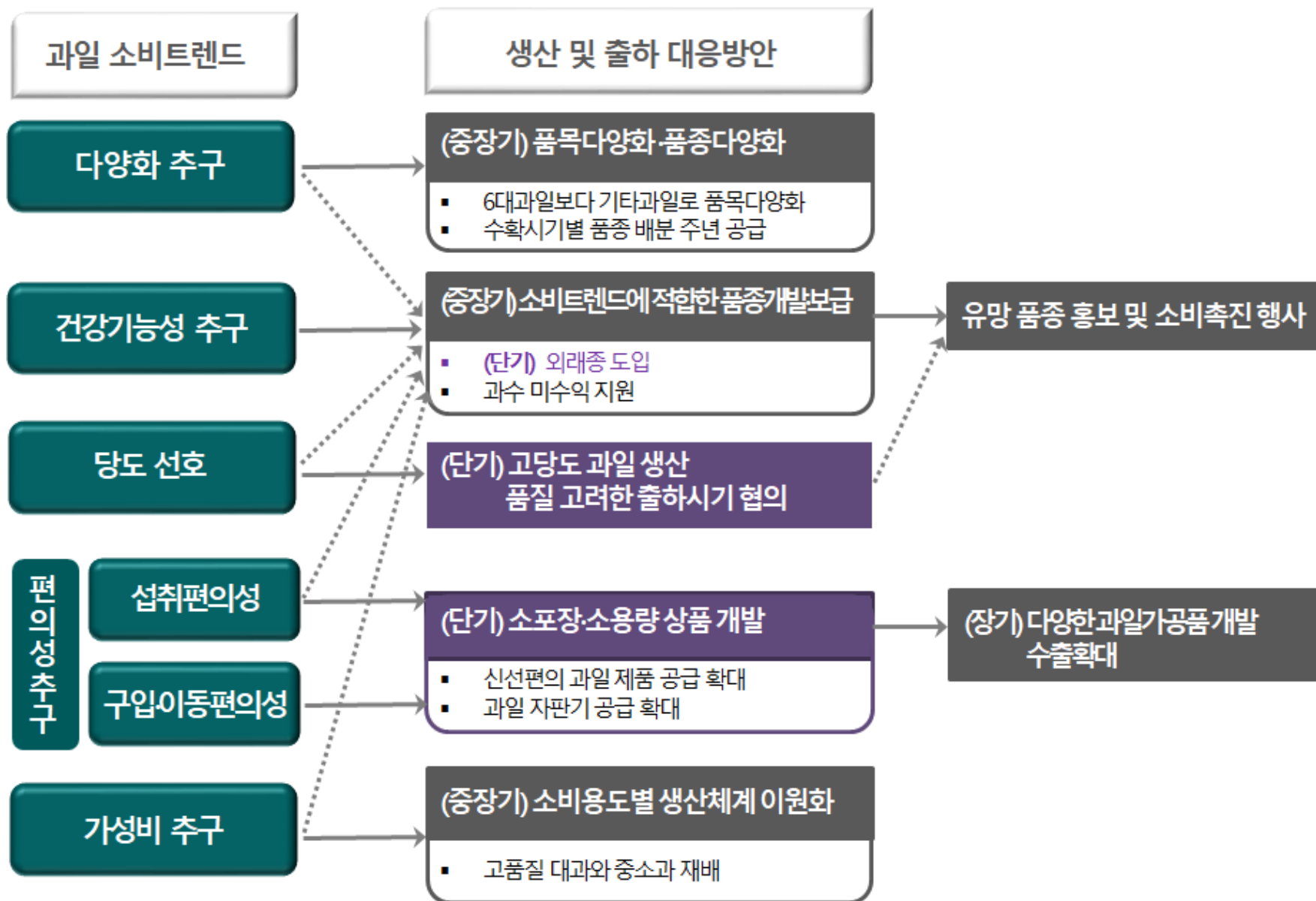
단위: 천 톤

2017	2018	2022	2027
53	54	58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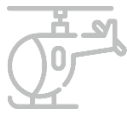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과일 소비트렌드에 부합한 생산 및 출하 대응방안



자료: 박미성 외(2017), 과일 소비트렌드 변화와 과일산업 대응방안



감사합니다
Thank you